



한국 역사소설의 과거와 현재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전개와 변모, 소재의 다양화와 과거의 재발견	1-1	역사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
		1-2	한국 역사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인물과 시점
		1-3	강좌 가이드 ①,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1-4	강좌 가이드 ②,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2	‘이순신’ 역사소설 - 임진왜란과 이순신	2-1	임진왜란과 이순신
		2-2	‘이순신’ 관련 역사소설들
		2-3	이광수의 『이순신』
		2-4	이순신과 거북선 신화
		2-5	이순신의 리더십,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2-6	영화, 드라마 속 이순신
3	세종대왕과 그의 시대 -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3-1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초상화의 변천
		3-2	한글과 여성
		3-3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3-4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
		3-5	세종대왕의 창의적 리더십
		3-6	미디어 속 ‘세종대왕’
4	조선시대의 기생 이야기-명기(名技)황진이 관련 역사소설	4-1	조선시대 천민의 표상 ‘기생’
		4-2	근대 기생, 여급, 모던 걸
		4-3	기생 이야기의 원형, ‘황진이’
		4-4	황진이 관련 역사소설의 계보
5	민중의 영웅, 의적의 탄생과 역사소설의 계보	5-1	동서양 의적의 탄생 배경과 특징
		5-2	허균, 《홍길동전》
		5-3	홍명희, 《임궏정》
		5-4	황석영, 《장길산》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역사 서사물의 다변화와 천민들의 성공 신화	6-1	팩션의 천민 성공 신화와 한류(Korean Wave)
		6-2	허준과《동의보감》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
		6-3	《소설 동의보감》과 드라마 〈허준〉
		6-4	궁궐의 전문직 여성, 궁녀/의녀와 대장금
		6-5	드라마 〈대장금〉과 천민 여성의 성공 신화
7	한국의 인삼과 거상(巨商)이야기	7-1	인삼(人蔘)의 학명(學名), Panax ginseng
		7-2	인삼 교역과 거상의 탄생
		7-3	최인호의 《상도》와 거상 임상옥
		7-4	4대에 걸친 개성 상인의 이야기, 박완서《미망》
8	식민지화와 한국전쟁이 남긴 이산(diaspora)의 문제	8-1	이산(diaspora)과 한국의 이산 문학
		8-2	만주로 떠난 사람들, 안수길의 《북간도》
		8-3	멕시코의 가혹한 노동 이민, 김영하의 《검은 꽃》
		8-4	이민진의 《파친코》와 애플 드라마 〈파친코〉
		8-5	이민진의 《파친코》와 재일 한인의 정체성 찾기
9	탈(脫)냉전의 산물, 빨치산(파르티잔)을 복원하다	9-1	‘한국전쟁은 내전이다’라는 말의 함의
		9-2	파르티잔, ‘빨갱이’로 타자화되다
		9-3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빨치산’ 재조명 ①
		9-4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빨치산’ 재조명 ②
		9-5	빨치산 딸의 서사, 대물림되는 분단의 고통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현 윤리와 트랜스 아시아	10-1	이미지의 재현 권력과 영상 역사의 가능성
		10-2	잊힌 항일여성혁명가의 흔적, 『세 여자』
		10-3	일본군 위안부 서사와 트랜스 아시아의 궤적
		10-4	대체역사소설과 SF와의 접점, 만약~이랬다면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한국문학과 문화를 알리는 K-학술 확산 강좌에 한국 역사소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가 역사소설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와 짧은 해방 뒤에 이어진 한국전쟁 및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항쟁은 격변하는 시대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재현하려는 욕구를 고조시켰다. 한국 역사소설은 역사와 소설의 긴장 관계에서 탄생한 고유한 장르적 속성으로 이에 부응했다. 근대 초부터 현재의 한류(Hallyu, Korean Wave)까지 동시대와 호흡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하고자 했던 한국 역사소설의 궤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해외 한국학 학습자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좌의 학습 목표

- ‘한국 역사소설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소설의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과거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한국인이 꿈꾸었던 이상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대별 작품의 변천 과정과 그 연계성을 살필 수 있다.
- 해방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사소설을 접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강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어학과 문학 및 문화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한다. 당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에서 주변부 역사까지 본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과 주제는 폭넓다. 한국 역사소설이 지닌 역동적인 면모를 고찰하는 본 강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촉발과 한국학 연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플랫폼의 다변화로 인해 한국 역사소설은 영화, OTT, 웹툰, 만화 등과 미디어믹스로 그 영역을 확장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본 강좌가 제시하는 한국 역사소설의 풍부한 잠재력은 지역 간·문화 간 비교 연구의 활성화와 글로벌 콘텐츠의 문화 자산에 활기를 불

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1주차

한국 역사소설의 전개와 변모, 소재의 다양화와 과거의 재발견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역사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
2차시	한국 역사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인물과 시점
3차시	강좌 가이드 ①,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4차시	강좌 가이드 ②,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1차시 역사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

학습 목표

- 역사소설은 역사와 소설의 두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적인 장르로 인식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다.
- 역사의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이중 요구는 역사소설을 주변화하면서도 대중적인 독물(讀物)로 만들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은 역사 소설에 대한 장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역사 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입니다. 역사 소설, 역사와 소설의 어디쯤에. 역사 소설은 역사와 소설의 두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역사의 범주가 어디까지이고 소설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논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중시하고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 요구에 역사 소설은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허구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픽진성 있게 과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제약은 역사 소설을 늘 주변부 장르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제약이 역사 소설을 견인하는 고유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가는 이 논란을 피해 가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40년에서 60년이라는 시간대를 제시합니다. 즉, 현재로부터 두 세대 전에 해당하는 이 시간대를 역사 소설의 무대로 삼고자 했습니다. 두 세대 전이라고 한다면 과거 기록도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도 있다는 절충이 가능합니다. 과거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되 그 틈새를 소설적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입장은 역사와 허구가 별개의 분야이며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규정도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의문시됩니다만 역사 소설이 이 제약 속에서 발전된 장르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크 에어리어(Dark area), 어둠의 영역. 역사 소설의 임계점인가? 플래시맨의 <영국의

역사소설(The English Historical Novel))은 두 세대 정도의 거리가 역사 소설이 다루기 좋은 시간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기록과 자료가 남아있다고 해도 전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 자료는 부분적이며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뿐만 아니라 역사 소설가가 처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또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이 공백을 역사 소설가가 어떻게 채우고 재현하는가에 따라 의미와 지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과거 역사를 탐문할 동기와 욕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빈틈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이를 채우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맨이 언급한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 기록의 공백,

그리고 그 균열을 채우는 허구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 특정 사건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 역사적 상상력은 어느 정도 한계를 뒤야 된다고 플래시맨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다크 에어리어를 직물 짜듯이 상상력으로 보완하는 데 한정을 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역사를 자유롭게 변형하고 각색하는 허구적 상상력은 어느 한도가 있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은 소설적 상상력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이미 그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오르크 루카치(Lukacs Gyorgy, 1885-1971)의 현대의 전사로서의 역사 소설입니다. 여기 루카치 사진을 같이 슬라이드에 제시했는데요. 역사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게오르크 루카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문예 사상가이자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1918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 아래 그는 헝가리 공산당에 가입했고 헝가리 혁명 정부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혁명 정부는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역사 소설론>은 1937년에 저술되었는데요. 이 분야 연구가 거의 없는 시대에 그는 역사 소설에 대해 최초의 이론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최초의 이론적 시도라는 그의 주장답게 <역사 소설론>은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며 전개되는데,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인용문은 월터 스кот(Walter Scott, 1771-1832)의 견해를 빌려 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시대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택된 대상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나 풍속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역사 소설론>의 용어로는 시대착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대의 어긋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카치가 또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마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현재의 전사(前史), 즉 이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전의 역사로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언어와 풍속으로 어쩔 수 없이 번역되어야 하지만 그 조화롭지 않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조화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루카치의 현대의 전사로서의 역사 소설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데요.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무조건적으로 과거 사실을 변형하거나 각색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루카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루카치가 찬양한, 그리고 이 역사 소설의 선구자라고 얘기했던 월터 스콧의 <아이반호>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월터 스콧은 근대적 역사 소설의 형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루카치인데요. 그는 월터 스콧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 소설론을 펼치기 때문에 루카치의 역사 소설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터 스콧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슬라이드의 제시문은 이 수업의 5주 차에서 다루는 민중의 영웅, 의적에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왕과 귀족의 상층 계급뿐만 아니라 스콧은 구전 속의 인물인 로빈 후드(Robin hood)를 등장시킵니다. 물론 로빈 후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로빈 후드를 통해서 당대 민중 생활과 문화를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카치는 민중 생활의 총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층과 하층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층의 생활상만으로, 혹은 상층의 취향만으로 역사를 총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로빈 후드라고 하는 민중 속, 구전 속의 인물을 등장시켰고 또한 주인공 아이반호는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 인물, 사실적 인물이 아닌 거죠. 그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웅도 아니고요.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반호를 등장시킨 것은 리처드 1세와 당시 귀족 계층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매개체 인물로 삼기 위해서 이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루카치가 말했던 중도적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인데요. 예문의, 그리고 리처드 왕의 내면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나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되었고 이를 통해서 또한 생생한 구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도적 인물이 루카치의 역사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역사적 인물의 내면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당시의 총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루카치의 역사 소설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도 텍스트의 일종이다. 신역사주의의 등장과 해체적 이해인데요.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딱 나누고 문학은 역사가 다루지 않는,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빈틈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던 전통적 역사주의는 20세기 후반에 신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서 비판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역사주의를 예로 들어 설명한 예문이라서 상당히 좀 길게 썼는데요, 슬라이드에서. 그린블랫(Greenblatt, 1943-)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린블랫은 역사와 문학은 과거를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고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창안해내는,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복원, 역사를 과거 역사에 그대로 똑같이 복원하는, 복원이라는 말도 신역사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가 불변하는 채로 온전히 현재에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이 말은 전제하기 때문인데요. 신역사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 파편화된 기록이나 유물도 특정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의 사회 정치적 관점과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왕조의 기록, 그러니까 왕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들의 것이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집단과 인물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거나 주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생활은 그 왕조의 기록이나 승자들의 기록에 남아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변부와 소수자들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증주의의 고증이나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이들의 역사를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과 해석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신역사주의자들의 주장은 역사 소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역사 소설은 과연 승자들의 역사에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보이나요? 모자를 쓴 이 아이는 GI 베이비 존 요한이라는 혼혈 고아입니다. GI라고 하는 것은 미군 병사를 말하는 Government Issue라고 해서 미군 물품이라고 하는, 보급 물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미군 병사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존 요한은 미군 병사 아버지와 성 종사자, 그러니까 미군 병사를 상대로 하는 성 종사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일찍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혼혈 고아를 눈여겨본 김영용이라는 고학생은 북한에서 혼혈 고아를 데리고 오면 상급 학교로 진학도 시켜 주고 모스크바로 유학도 시켜 주고 안정된 직장도 준다는 간첩의 말에 아이를 데리고 휴전선 철책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군인들에게 당연히 체포되었고요. 휴전선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난한 고학생과 미국 군인, 그리고 한국인 매춘 여성 사이에 난 혼혈 아동의 월북 시도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이 사건은 이후 사라졌고 잊혀졌는데요. 강의자는 이 사건을 당대 맥락과 교차시켜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전한 고아 구호 담화, 우리가 너무 남한에서 혼혈 고아나 고아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겠다. 이런 담화를 1958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담화와 여기에 가난했던, 그리고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업에 꿈이 있었던 기층민들, 김영웅 같은 고학생들이 이런 것에 호응해서 월북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연장에서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 자이니치라고 하는 재일 조선인들도 일본에서의 차별과 모멸에 못 견뎌 1959년 12월부터 1961년까지 7만 4,000여 명이 북한 땅을 밟았고요. 이 거대한 북한의 엑소더스(Exodu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의 엑소더스 속에 월북 시도도 남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락과 교차하면서 두터운 묘사를 하게 되면 이 1장의 사진은 새로운 의미를 띠고 다가옵니다. 한국의 미군 기지와 냉전의 구조, 기지촌 매춘 여성과 혼혈 고아, 월남인들의 가난과 소외, 혼혈 아동에 대한 방치, 입양. 그리고 아동복지가. 바로 이런 제도적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요소가 얹혀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주변부 역사란 이 남아있지 않은 기록들을 이렇게 두텁게 여러 겹을 쌓아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서술될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는 사실 효과의 산물일 뿐 모든 리얼리티는 재구성된다고 하는 왼쪽의 지문과 오른쪽의 두 사진을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불안정하고 선별과 가공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라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효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역사주의자의 주장 이후에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 효과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산출되고 재구성되는 담론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되고 연출되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1937년에 상해 폭격을 담은 사진입니다. 위쪽의 사진에서 보면 아이 혼자 파괴된 역에서 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중 폭격에 의해서 파괴된 상해의 모습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면 그 아이 옆에 분명히 어른이 있습니다. 현장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를 의도적으로 초점화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은지웠다고 하는 이후의 이 사진의 조작의 주장이 나왔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연출되었으며 거짓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의 역사 수

정주의자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일본이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보도 윤리의 측면에서 분명히 이 사진의 연출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실제로 이 폭격으로 다쳐서 누워 있는 사진은 또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또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수정주의자들도 또한 일종의 역사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슬라이드의 사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의 진정성 위기와 경합하는 역사 해석. 단수 역사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 사진에서 아이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폭격은 이 아이의 사진에서 보듯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군의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말 폭격이라고 하면서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북한 지역에 가했던 무차별 폭격 역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룰 공중에서 본 원자폭탄은 경의와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만 지상에서 그 폭탄은 두려움과 재난이었습니다. 전쟁은 이 모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인류가 만든 큰 재난이며 범죄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효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 문헌에서 제시한 <우리 역사 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설명의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 효과의 측면을 역사 소설을 재정의한다면 이와 같은 도표가 가능합니다. 역사 소설의 4가지 분류. 기록적인 것에서 환상적인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오른쪽에는 역사 서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환상. 합의를 리얼리티를 이탈해서 판타지의 영역까지 가는 이렇게 역사 소설의 4가지 분류를 강의자가 나눠 봤는데요. 한국 역사 소설을 사실 효과의 측면에서 4가지로 나눈 도표입니다. 역사라고 하지 않고 역사 서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사도 서사처럼 구성되어야지만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서사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기록적이다. 그래서 가공과 각색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될수록 역사 소설은 판타스틱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역사가 그런데요, 이 부분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SF와도 접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SF는 타임머신과 같은 발전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현재, 과거, 미래를 교차시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의 역사 드라마 팩션(Fac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적 조어입니다. 팩션은 팩트와 픽션의 조합어인데요. 팩션은 역사의 기록이나 제약에서 자유로운 것을 얘기하고요. 이 흐름에 힘입어서 한국 드라마가 한류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입니다. 한국식 조어, 팩션의 유행을 선도했던 드라마입니다. 또한 <왕의 남자>, 키워진 상상력으로 천민 광대판을 벌이다. 이 소설도 <왕의 남자>에서도 팩션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빨간 옷의 두 남성 광대입니다. 광대는 이후 다루게 될 조선시대 신분제 최하층인 천민에 속한 계층인데요.

이 광대와 왕의 서로의 뭐라고 할까. 공감, 교감을 다뤄서 굉장히 영화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대와 왕의 사이, 광대와 광대 사이의 이 남성들 간의 쿼터적인 애착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팩션으로서 성공을 거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1
- 테사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 김경연 옮김,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itle/70201175>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http://file.koreafilm.or.kr/poster/00/03/31/DPK06750A_01.jpg
- namu.wiki,
https://i.namu.wiki/i/tyGkUHfZcc6pmkpzbnMKfHunScS9bK5mIgyfIKyplBHm2-oqyQmVr6KRcQwgNB0eEO-XML4d2w97yieGrE3Q5bdQi_PA2QSAi6n9H2YuhfKPjUCLd1rW3aQbVZFPB7ZzbWr92iqd4au_EHCyuw9rA.webp
- <붉은 거미줄에 걸렸던 혼혈아>, <희망>, 1956.12, 92면
- 게오르그루카치, 반성완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69, 193면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b/Luk%C3%A1cs-comisario-alimentos-hungr%C3%ADa-outlaw diary02tormuoft.png/375px-Luk%C3%A1cs-comisario-alimentos-hungr%C3%ADa--outlaw diary02tormuoft.png>
- amazon,
https://m.media-amazon.com/images/I/41lc2652P1L._SY291_BO1,204,203,200_QL40_FMwebp_.jpg

2차시 한국 역사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인물과 시점

학습 목표

- 한국 역사소설은 네 분기점을 거치며 진화, 발전되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역사소설의 역사적 인물은 허구적 인물과 달리 독자가 이미 획득한 사전 지식과 경합하며 극적 개연성을 부여해야 하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은 한국 역사 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그러니까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사실 효과의 측면. 그러니까 모든 게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사 소설은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어떻게 인물을 구성하고 시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 소설의 네 분기점은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00년은 일본에 의한 식민화의 위협으로 주권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이 됐고요. 1910년은 한일 병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주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과거의 영웅이 호출됩니다. 1900년대를 기준으로 먼 과거부터 아주 가까운 과거까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초인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인물이 선호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을지문덕(乙支文德), 이순신(李舜臣)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외국의 영웅들도 활발히 소개되었는데요. 잔 다르크와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처한 국난의 극복과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30년대 역사 소설의 전성기가 펼쳐지는데요. 조선의 전통과 유산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역사 소설이 하나의 부흥기를 맞는데요.

이광수(李光洙, 1892~1950)라든지 홍명희(洪命熹, 1888~1968), 김동인(金東仁, 1900~1951), 이태준(李泰俊, 1904~?) 같은 역사 소설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이후 수업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1970~80년대는 민중론이 부상하면서 민중이라고 하는 집단 주체가 강조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민중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소설이 쓰였습니다.

2000년대 신역사주의의 흐름 속에 경제적 파탄과 상실로 인해 역사의 개별화가 뚜렷해

집니다. 역사적 인물도 사실 알고 보면 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더 부각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역사 소설의 흐름을 거칠게나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900년대 주권의 위기와 애국 계몽의 열기라고 해 봤는데요.

1900년대는 봉건적인 조선조 왕조가 몰락하고 근대 질서로의 전환이 그야말로 강제됩니다. 근대 국가 중심의 세계 체제가 규범적인 질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대 국가는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 질서와 달리 국가 자체가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주권 국가의 성립이 강조되고요. 반대로 이 주권 국가 수립에 실패하면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제국주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주권 국가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던 190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 열강들의 실질적인 위협은 그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요. 이런 위기감이 당시의 공론장을 지배했습니다. 문학도 이 흐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예문의 지적은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상의 일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 전기물인데요. 전(傳) 등의 전통 양식을 활용하여 민족의 영웅이나 국난 극복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주독립과 애국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대 문학 형식이 아직 확립되기 전 시대성을 강하게 내재한 이 역사 전기물은 이후 역사 소설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요. 이때 쓰인 다양한 역사 전기물들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영웅 이순신을 다룬 신문 연재 역사물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다른 역사 전기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 영웅인 <이순신전>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래는 외국의 영웅과 위인들을 서술한 책 표지입니다. 정치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단 <서사 건국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영웅 빌헬름 텔의 이야기입니다. 12세기의 서사국(瑞士國)이라고 하는데, 이 서사국이 어떤 나라인가 모르시겠지만 서사국은 현재 스위스를 가리키는 옛 한국식 표현입니다.

12세기의 스위스는 이웃 나라 게르만, 즉 현재의 독일에게 점령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이 영웅 빌헬름 텔을 탄생시켜 위기에 빠진 조국을 건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어로 개작된 것을 번안해서 정치 소설이라 이름 붙여 파는 것인데요. 번안(翻案)이라는 말이 어렵죠. 번안 소설이라는 것은 외국 작품에서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풍속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름, 그리고 사람 이름 등을 자기 나라에 맞게 고쳐서 번역한 소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1900년대를 살필 수 있었다면 1930~40년대 초까지 파시즘의 발흥과 역사 소설의 전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역사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유행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았던 거죠. 신남철(申南

徹, 1903-?)은 저명한 사회주의 사상가였는데요. 그의 눈에 복고주의는 이게 한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칩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인 것이죠. 현대의 낭만적 복고사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나아가서는 파시스트적이기도 하다라고 신남철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때의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윤백남 등 이들에 의해서 다수의 역사 소설 문제작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본 강좌를 진행하면서 1930~40년대를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30~40년대 역사 소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가 정말로 한국에서는 역사 소설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 소설의 붐이 이처럼 파시즘의 고전 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적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이 30~40년대는 또한 일제의, 일본의 식민의 어떤 통치가 절정으로 치달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비판도 또 있습니다. 역사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폭압적인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역사의식의 산물이 곧 이 당시의 역사 소설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파시즘의 복고 유행,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폭압성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하는 이 이중의 견해가 또한 맞물리고 있는데 이 2가지 지적이 다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70~80년대 민중론의 부상과 역사 소설의 재전성기라고 했는데요. 1970~80년대는 한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민중론이 지배적으로 떠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은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도전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컸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 계층이 성장한 것도 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 속에서 민중의 개념, 범주, 성격, 지도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민중이 있냐, 없냐. 민중의 실체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과열되었습니다. 어디까지를 민중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적 지식인, 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소시민적 지식 계층은 민중에 포함되는지도 문제였죠. 이러한 논란과 쟁점에도 불구하고 대항 개념과 운동으로서의 민중론은 이 시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등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학술, 사회, 역사 분야까지 민중론이 화두가 되었음을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예문은 전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민중 전체를 대변하는 민중론의 대항 헤게모니적인 성격은 역

사 소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시게 될 <장길산(張吉山)>, <태백산맥> 등도 바로 이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민중의 집단 주체에 기반한 변혁의 가능성은 세대, 젠더, 계층의 차이를 무시한 너무나 민중이라고 하는 집단 주체만을 강요한 게 아닌가라고 또 2000년대 이후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민중의 대항 성격은 이 시대의 산물로서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덧붙이고 싶고요.

2000년대 신역사주의와 역사 소재의 다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영화에서 사극 바람이 부는데요. 예문에서 말하는 사극이란 역사를 소재로 한 극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팩션이라고 하는 한국식 조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팩트, 사실, 픽션, 허구를 조합한 한국식 조어입니다. 역사 소설은 기본적으로 팩트, 즉 사실과 픽션, 허구의 긴장 관계를 동력으로 탄생한 장르입니다만 영화에서도 이 팩션이라는 조어를 만들어서 뭔가 역사를 소재로 하되 그 감독이나 작가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사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팩션이라 부를 만한 작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사극의 열풍 못지않게 출판 시장에서도 대중적인 역사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역사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소설보다도 대중적인 역사서가 더 많이 팔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든지, 그리고 <칼의 노래>, <황진이> 같은 경우도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거 역사를 소재로 대중들이 소설을 읽듯이 대중적인 역사 소설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일상의 문화 풍경과 이야기 역사를 보시면 <체 게바라 평전>,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는 이야기 역사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 게바라는 유명한 사회주의 혁명가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은 냉전적인 사고가 아직도 굉장히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체 게바라 평전>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대중적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 소설과 역사서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역사주의의 전환의 양상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고유명사, 사진 정보와 결합하는 역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역사 소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같은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광수의 <단종애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1930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 소설에서 수양대군은 후일 어린 조카인 왕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조(世祖)인데요. 세조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사전 지식이 있어요. 어린 조카를 폐위하고 사약을 내려 죽게 했다는 1차 정보에서 이를 바탕으로 이런 무자비한 권력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여기에 공감하는 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양대군(首陽大君), 즉 이후 세조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역사적 인물에는 당연히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역사 소설가는 역사적 인물을 재현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정과 평가를 배제하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소설은 극적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역사서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광수의 그렇다면 〈단종애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단종애사〉는 어린 조카 단종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단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조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수양은 14살에 남의 집 유부녀의 방에서 자다가 그 서방에서 들켜서 발로 뒷벽을 차서 무너뜨리고 달아나길 10리나 했던 아주 문제아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폭행범에 가까운 이 위험천만한 인물이 바로 세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시선에서 세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와 경합하는 역장에서 사육신(死六臣)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광수는 굉장히 동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조에게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을 복권시키고자 했다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모진 고문과 형벌이 가해졌는데요. 화유도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면 나의 신하가 되어 주면 너희들 다 다시 벼슬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만화에서 보면 사육신은 단호하게 NO라고 외칩니다. 사육신을 표현한 이 만화에서 세조는 나에게 NO, 현재 월급을 받으면서 역모를 꾀하는 배신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 죽음을 곧 맞게 될 사육신들은 나는 돈 한 톨 받은 적 없는데 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서 이들은 결국 죽은 6명의 신하라고 해서 이광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백성들의 반응 역시 굉장히 이들에게 동정적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역사적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사육신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백성들은 불쌍해할 수도 있었겠죠. 지난 과거는 백성들의 반응까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작가는 사육신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신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으로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사전 정보와 경합하는 역장에서 그렇다면 이광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소설은 똑같이 이렇게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이 소설은 김동인이 썼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수양대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대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쓴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후에 수업에서도 또한 다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의 시점에서 보면 파노라마적 관점과 버드 아이즈(Bird's eyes)라고 하는 관점과 그리고 여기서 뒤의 것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재현의 시점, 현미경적 시점, 플라이스 아이로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현의 시점, 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소설의 구성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현의 시점, 파노라마적 버드 아이즈는 큰 상공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현종(劉賢鍾, 1939-)의 <들불>이라는 작품인데요. 1976년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70~80년대는 민중론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배층에 억눌려 민중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변혁의 전망이 강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들불>도 이런 흐름 속에 속해 있었고요. 이 사건, 이 소설에서 제시된 역사적 시간대는 동학농민전쟁, 혹은 갑오농민전쟁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민중들이 봉기를 했고요. 임여삼은 바로 이 민중 봉기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불처럼 민중들도 지금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민중의 전형성을 담지하고 있는 큰 파노라마적인, 버드 아이즈의 관점에서 이 소설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미경적 시점은 같은 동학 농민의 혁명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내면화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공도 농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판적 지식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즈 아이(fly's eye)라고 하는 곤충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곤충의 시점으로 보면 거대한 역사적 무대에 던져져 있는 개인들은 모두 욕망이나 동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판적 지식인은 내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양반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양반 계급의 인물이 양반 계급을 배반하고 농민의 편에 섰던 이유.

그리고 그 동기가 농민의 입장에서 뭔가 세상을 변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나에게 갇혀 있는 폐쇄된 어떤 상황이 싫고 이런 점에서 내가 반항을 해서 결국 전봉준이라고 하는 동학군 농민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된 비극적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뒤틀린 욕망, 배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시기, 같은 인물이 다르게 묘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 유현종, 《들불》, 행림출판사, 2005
- 한국근대문학관, 《한국 근대문학사》, 한겨레출판, 2016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83
- 강형석, 〈사극 다시 날개를 펴다〉, KMDB, 2015.1.6.
- 김진송, 《서울에 땀스흠을허하라》, 현실문화, 2020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28342/40/cover200/scm7233023018772.jpg>
- 서기원, 《혁명》, 삼중당, 1976, 26면
- [논산정신과 동학]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황산성오르다, 놀피신문, 2020.02.20
- Yes24, <http://image.yes24.com/momo/TopCate46/MidCate09/4586502.jpg>
- [뉴스 속의 한국사] 호국 영령 잠든 곳... 원래 사육신의 충절 깃들어 있었죠, 조선멤버스, 2017.04.25
- 이광수, 《단종애사》, 일신서적, 1985, 333면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56/47/cover500/8939205103_2.jpg
- https://image.aladin.co.kr/product/22946/81/cover500/8965642434_1.jpg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48/95/cover500/8970134417_1.gif

3차시 강좌 가이드 ①,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학습 목표

- 역사소설의 중요 인물인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한국의 공간 탐방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5주차 수업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강좌는 한국 역사 소설의 과거와 현재를 전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소설은 과거 역사를 1차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대적 환경이라든지 변화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작가가 쓰고 있는 당대 시대상.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수업을 듣거나 읽을 때의 현재의 역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역사 소설은 190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역사 소설이 있고요. 정말 제가 소개하지 않은 역사 소설도 많습니만 강의자의 역량과 중요도를 감안해 1-5주차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과 항상 1, 2위를 다투는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는 이순신 장군 관련 재현물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돼 탄탄하게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소설이 그 물꼬를 텃지만 영상 미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2014년, 22년, 23년 차례로 개봉된 이순신 3부작 영화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기의 시대에 호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화력뿐만 아니라 조정의 지원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잘 준비된 왜적에 맞서는 일은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 하더라도 아주 승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기에 때문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이순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이순신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국가 영웅으로 기념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전이었던 임진왜란이 어떤 식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들을 파악하시면 일국적 시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연관시켜서 임진왜란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 광화문 지하에 마련된 지하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동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당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 전시관에서는 좀 부족하니까 본 강좌를 듣고 전시관을 구경하시면 훨씬 다양한 체험과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신 관련 유적을 찾아서 전쟁 기념관인데요. 전쟁 기념관에 설치된 거북선의 모형입니다. 각 국가마다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어떻게 보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삼각지라는 곳이 있고요. 그 근처에 큰 규모의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전쟁 기념관에 그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왜 전시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순신의 임진왜란도 하나의 전쟁이었구요. 이순신의 공적에 있어서 거북선은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전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북선의 실물은 그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상상력과 추론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 핵심 비기. 비기라고 하는 건 비밀스러운 무기인데요. 비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거북선이 큰 역할을 했고 한산해전(閑山海戰)에서 큰 승리를 가져온 역할을 했는데 이순신이 원균(元均, 1540~1597)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거북선 다 망가지고 이후에 거북선의 존재는 희미해지면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북선의 모형은 사실 이후에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선의 실상과 그다음에 미화 사이에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거북선이 이렇게 1920년 되면 거북선이 철갑선을 떠나서 잠수함이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게 되거든요. 당시 잠수함으로까지 거북선을 보는 것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북선의 신화가 부풀려진 것이죠.

그래서 거북선의 실상과 미화 사이에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전쟁 기념관이 전쟁을 흑이나 너무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의 기억 못지않게 전쟁이 가져왔던 파괴, 그리고 당대 민중들의 삶의 처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전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쟁 기념관의 거북선 모형도 가져와 봤습니다.

〈한산, 용의 출현〉속 북카이센(沐海船). 상상 속 수호 동물과 닮아 있는 형상인데요. 일본인들은 그렇다면 임진왜란을 결국은 이순신의 해전에서 저서 일본인들이 임진왜란을 패배의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후 어떻게 재현하고 있을까요? 거북선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적고 제가 실물로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보쿠카이센으로 불렀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혹은 메쿠라부네(盲船)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복카이센은 2022년 개봉된 한국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의 병사들이 복카이센이다 이렇게 말해서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복카이센은 목해선을 가리키는데 여기엔 특별한 뜻이 없고요. 상상 속의 오른쪽 사진의 사치호코라는 상상 속 동물을 연상했다고 합니다. 등에 날카로운 돌기가 있는 신령스럽고 위협적인 동물이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에 일본의 오사카성에 복카이센의 지붕 양옆에는 사치호코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에 여행을 하면서 오사카성을 가게 된다면 그 지붕 이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아하, 애가 사치호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치호코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순신과 수길 히데요시를 실증에 입각해 썼다고 밝힌 가타노 쓰기요(片野次雄)의 책 표지입니다. 제목은 〈이순신과 수길〉, 부제는 〈문록·경장의 해전〉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문록(文祿)·경장(慶長)의 해전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데요. 일본인들이 상상한 거북선의 모습이 좀 흥미롭습니다. 눈빛이 아주 사납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거북선은 실물이 남아있지 않음으로 해서 더 다양하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상상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상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과 현재성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순신은 이를 충족해 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며 모델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폭넓고 좀 더 역동적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의무이자 뭔가 책임이 되지 않을까,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광화문 지하 전시관과 한글의 재창조인데요. 세종대왕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한국어 문자인 한글은 아직도 어떻게 만들었지, 한글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창제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처럼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전시는 광화문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동상 아래에 지하 전시관이 있는데요. 그 지하 전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을 소재로 다양한 창조적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고요. 옷의 문양을 한글로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소품에도 한글을 응용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멕시코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현지 소외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나뉘드린 거죠. 그래서 한글책을 손에 쥐고 활짝 웃는 세종대왕의 그림은 멕시코인들이 실제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그의 시대를 여러분이 강좌를 들으시고 세종대왕이 이런 한국 문자인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시

대에도 봐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싶게 다양한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대왕은 인문과 자연과학에 모두 능통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한글 때문인데요. 한글이 얼마나 넓게 사용되고 그리고 이용되었는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을 아무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결국 사용되지 않는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 한글은 결국에 사장되고 말았을 텐데 이런 한글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은 바로,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에 관한 본 강좌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시관을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글 창제의 미스터리, 집현전을 중심 무대로 삼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한글 창제는 너무 미스터리하게 어느 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작가들의 너무나 흥미로운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다크 에어리어,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어둠의 영역을 그럴듯한 상상력으로 파헤친 소설이 바로 여러분이 왼쪽에서 보시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다빈치코드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도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장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서, <시학>에서는 비극론밖에 없는데요. <시학>에 남겨져 있지 않은 희극론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소설을 전개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미스터리와 추리 서사가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살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뭔가 희극을 알고 싶어 하는 앎을 독점하고 금지하려는 기성의 권위, 그리고 너무 자꾸 금지하니까 알고 싶어 하는 인간 보편의 지적 호기심과 욕망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은 수도원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간을 중심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로 이 문자가 탄생했고 그리고 문자의 세계를 탐구했던 집현전(集賢殿)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입니다. 집현전은 한글 창제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그리고 한글 창제의 비밀을 파헤쳐 가지고 결국 한글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방해하려는 자의 죽음을 건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이고요.

그래서 수도원과 집현전은 어떻게 공간이 인간 의식을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경복궁은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관광 명소고요. 그 경복궁(景福宮)에 수정전(修政殿)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집현전 없는데요. 이 수정전 건물이 집현전 터였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본 강좌를 듣고 경복궁을 탐방

을 하면서 수정전 건물을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전 건물에서 〈뿌리 깊은 나무〉 소설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집현전이었구나라고 구경을 하신다면 훨씬 풍부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기 황진이의 복원된 묘. 북한 땅이라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으나라고 제가 점점 말 줄임표를 썼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천민이란 한자의 뜻을 살린다면 진짜 천한 백성을 말하는 것, 최하의 신분이었던 셈입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대부분 관청에 속해 있던 관기였습니다. 이들은 궁중 연회나 남성 양반들의 놀이에 불려 가서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의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기생의 이야기를 또한 본 강좌는 다루고 있습니다.

1908년에 발표된 기생 단속령으로 관기의 신분에서 근대 기생으로 이들은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적 제약에서는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생 단속령을 통해서 일제 식민 당국은 허가제를 의무화했고요. 그래서 기생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서 경시청의 허가를 받고 또한 굉장히 기생들이 싫어했던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생은 근대의 탄생과 더불어서 자유 계약자라고 하는 상품 노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강좌를 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속에서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신여성 기생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여성 기생은 단발량이라고 해서 단발을 한 아가씨로 막 등장을 하며 시대의 첨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배우가 되기도 하고 또 가수로도 탄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명기라고 하는, 이름난 기생을 명기라고 불렀는데요. 대표적 명기는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황진이입니다. 북한은 2011년 황진이 묘소를 복원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명월 황진이의 묘라고 적혀 있잖아요, 묘비에. 그런데 원래 황진이는 기록에 보면 자신을 길거리에 묻어 달라고 했는데 이 묘소가 길거리에 있는지는 저도 못 가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홍석중의 역사소설 〈황진이〉는 북한의 역사 소설인데요. 이 에로틱한 삽화와 황진이를 교차하며 좀 드는 생각은 저도 빨리 북한에 가서 황진이의 묘가 어떻게 복원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기생도 3.1운동에 참여, 독립선언서와 처음 만세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을 찾아서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를 배우신다고 한다면 3.1운동은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입니다.

전 민족적인 시위로 일제의 무단 통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전 민족적인 봉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흔적을 찾아서 수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33인의

의로운 기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물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33인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에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갔기 때문에 3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역사적 상징성을 띤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원한 기생도 33인이라고 해서 역사적 상징성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생 검사라고 해서 성병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요. 식민 당국이 성병 검사를 받게 했고 기생들은 이걸 대단히 치욕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울분, 그리고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33인의 기생은 바로 코앞에서 일본 경찰을 앞에 두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를 발굴하여 복원한 33인의 명단은 여러분이 왼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청년 학생들은 탑골공원(塔골公園), 당시 파고다공원으로 불리었는데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여기서 처음 만세를 불렀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탑골공원의 팔각, 8개의 모양의 지붕을 가진 팔각정(八角亭)에서 3.1운동의 만세 시위가 처음으로 불이 당겨졌고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은 이러한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을 꼭 한번 가셔서 팔각정이 어디 있지라고 찾아보시고 여기서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 왔던 수많은 청년 학생들과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은 만세를 외치며 지금 여기 있는 대한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복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대한문은 그때 사람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시내를 따라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렇게 시대정신을 띠고 있었던 기생을 사상 기생이라고 했는데 33인의 의로운 기생들도 사상 기생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도(大盜)와 의적(義賊)사이, 임꺽정의 민중전설과 흔적인데요. 의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평안했다면 결코 도적이 되지 않았을 평범한 민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도적으로 내몬 상층의 부정부패, 그리고 학정(虐政), 그리고 탐욕은 의적이 출현할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의적이 반드시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고 재산을 나눠 주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상층의 포악한 인물들을 혼내고 처벌하기만 해도 이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민중들은 의적들을 환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평소의 불만과 반감을 투사하고 만족을 하는 것이죠.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적은 로빈 후드 같은 인물로 정의를 합니다. 로빈 후드는 한 특수한 개인이기 이전에 서구에서는 의로운 도적의 대명사였던 셈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런 큰 의적이 임꺽정인데요. 빨리 잡지 못해서 큰일이라는 재배층의 시각만이 조

선왕조사의 기록에는 남아있습시다만 민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강원도(江原道)의 한탄강(漢灘江)에 있는 고석정은 실제 임꺽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군을 물리치고 꺾지라는 물고기로 변해서 아직도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기록과는 무관하게 고석정은 민중의 좌절과 희망을 간직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에 가시게 되면 고석정을 찾아서 여기에 임꺽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민중들이 여기에다가 하나의 신화와 전설을 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천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신분제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서울편》, 창비, 2022
- 공임순, 〈한양과 경성의 쇼츠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Jw1mA3afvPo>
- 에듀넷, http://down.edunet4u.net/KEDNCM/A000800002_20140428/e5_so_23_01_image01.jpg
- [카드뉴스] 1월 3일은 조선 3대적 임꺽정 처형된날,부천타임즈, 2021.01.03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f/Goseokjeong%2C_a_natural_tower_of_granite_rock%2C_at_Hantan_River.jpg/300px-Goseokjeong%2C_a_natural_tower_of_granite_rock%2C_at_Hantan_River.jpg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7/Tapgol_park_main.jpg/1280px-Tapgol_park_main.jpg
- [3·1운동.임정 百주년](27) 의로운 기생 33인 '대한독립만세',연합뉴스, 2019.02.14
- 이름도 모습도 바뀐 덕수궁 '대한문'...제 모습 되찾는다,경향신문, 2020.04.08
- 황진이의 〈꿈〉 (2),세종경제신문, 2015.11.29
- 홍석중, 《황진이》, 대훈서적, 2002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6600/0/cover500/8956609268_1.jpg
- YES24,
https://image.yes24.com/YES24ViewerDatas/Z47_LT/A469/B4690/4689362_L/pp74743jh9v1sqn3.jpg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data/img/eh/eh_n0390/eh_n0390_i01.jpg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uploads/mediahub/2022/09/vooLkZpQTRVPxjGzblujNKjSkBQKbfbE.jpg>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uploads/mediahub/2022/09/rfmkAmZmTTMJNlKvdMomZDFGDGFFWbYV.jpg>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uploads/mediahub/2022/09/IRxFVHbMfxjRQpWiZehxzqrgShtMEegp.jpg>
-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webzine/201909/sub1_1.html
- 멕시코인들이 디자인한 '한글 마스크', 현지 소외계층과 나눈다,연합뉴스, 2020.10.09
- Wikip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0/Shachihoko.jpg/270px-Shachihoko.jpg>

- amazon, https://m.media-amazon.com/images/I/51M0SV07MJL._SX322_BO1,204,203,200_.jpg
- [포토 카페] 거북선과 이순신, 국민일보, 2019.08.15.

4차시 강좌 가이드 ②,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학습 목표

- 6-10주차의 강좌 안내로 수업을 위한 사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역사소설에 묘사된 장소를 탐사함으로써 현재적 위치에서 과거를 추체험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수업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본 강좌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해서 읽었으면 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강좌의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최초의 의학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한의학 박물관입니다.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한국의 고전 의학서로서 지금도 한의학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참조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며 그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동의보감>이 중요한 의학서였지만 이것이 대중적인 상식이 된 데는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의 역할이 아주 큼니다.

잡지에 연재한 것을 1990년 소설 <동의보감>으로 펴낸 것인데요. 이 책이 400만 부 이상 팔리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동의보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허준>은 대한민국 역대 사극 시청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전체 드라마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이라고 해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예방의학, 그리고 공공의료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동의보감>의 의미가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래로 공공 부문이 계속적으로 사유화, 자본화되고 이런 것이 지금 당면한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글을 아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보고 관리하는 예방의학, 그리고 백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동의보감>을 짓게 했던 공공의학의 정신을 <동의보감>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하는 가이드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동의보감>을 포함해 한의학의 약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서울시 한의학박물관인데요. 1층에서 3층까지 한의학과 관련된 전시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들러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역사 소설 <동의보감>. 허준의 직계 후손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제가 적어 봤는데요. <동의보감>을 쓴 직계 후손들은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허준의 10대손이 황해도 해주로 옮겨 갔기 때문인데요. 황해도 해주는 현재 북한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계 후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도 <동의보감>은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사회문화 관광 자원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회문화 관광 자원이란 관광적 매력을 원천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관광에 이용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대상과 현상을 북한이 그런 식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원, 박물관 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980년대부터 외부 여행, 관광을 본격화한 북한에서 <동의보감>은 사회문화 관광 자원 중 역사 문화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역사 소설은 한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를 말합니다. 남한보다 늦게 출간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소설 <동의보감>은 1990년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2018년 장편 사회를 타이틀로 금성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동의보감>을 어떤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좀 자유롭게 확인하면 좋을 텐데 이 연구가 아직 없고요. 다만 <동의보감>을 쓴 작가의 에필로그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민족의 귀중한 재보(財寶)-대대손손 전해 갈 3대 고려 의학 고전의 하나인 <동의보감>. 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뉘, 뜨거운 정과 열로 몸부림친 의학자 허준의 한생, 일생의 총화였거늘, 그의 삶은 정녕 인생의 보감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본 강좌에서는 북한의 역사 소설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가이드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 남한에서 대히트를 한 드라마 <허준>의 인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한테 다 뺏기겠는데 생각한 북한이 <동의보감>을 급하게 자기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역사 소설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인삼의 학명,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과 개성 상인에 대해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인삼과 거상 이야기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인삼은 한국의 대표적인 약재고요. 아주 대중적인 건강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삼은 한국인들에게 약간 밥과 같은 주식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강의를 하려다 보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인삼의 주산지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인데요.

중국이란 한국은 한반도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인삼은 생김새가 똑 같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1870-1943)라는 사람이 한국의 인삼사를 총정리한 7권의 책을 냈는데 그건 본 강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무라 도모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중국 대륙, 중국에서 나는 요동(遼東) 인삼은 북아메리카의 미국산 야생 인삼에 비해서 아주 뿌리가 짧고요.

반대로 미국산 야생 인삼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서는 조선 인삼이라고 쓴 고려 인삼은 너무 인간과 닮아 있어서 그래서 혹시 고려 인삼의 효능이 큰가라고 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여기서 막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인간과 너무 흡사한 고려 인삼의 모습 때문에 인삼 관련 신화와 전설 등이 너무 많이 전해져 오고 있고

이마무라 도모도 책에서 신화와 전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되어있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빅히트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게 신화, 전설처럼 그런 것의 온갖 버전들의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 다리 내놔.”라는 공포 버전이 있습니다. 시체 다리를 잘라서 삶아 먹으면 병자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 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오는데 뒤에서 쿵쿵쿵 하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밤새 따라오는데 겨우 뿌리치고 다리를 삶아 봤더니 그게 바로 인삼의 뿌리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인삼이 사람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데서 유래한 이 신화나 전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삼은 무엇보다 개성 상인을 상인의 대명사로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개성 상업계의 인물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 강좌에서 꼭 참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본 인삼의 글로벌 유통과 이동인데요. 현재 한국의 인삼은 남부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 관련 축제, 박람회, 박물관들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 있는 영주시는 인삼 박물관을 갖추고 인삼 엑스포를 개최해서 인삼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잘 보시면 루이 14세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약물학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삼은 동아시아 교역을 넘어 이렇게 유럽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죠. 북아메리카에서 동아시아 인삼과 흡사한, 아까 야생삼도 보여드렸는데요. 발견되어 소위 인삼의 광풍이 부는데 서부의 금광 열기에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글로벌한 교역이 낳은 개

성 상인의 유명세는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요.

그중 흥미로운 것이 17세기 피터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가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의 그림이라고, 그림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는 본 강좌에 제가 사진으로 제시해 뒀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복을 입은 남자가 개성 상인이었다는 오세영의 <베니스의 개성 상인>의 이야기도 본 강좌에 소개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이를 소재로 한 이상훈의 소설 <한복 입은 남자>는 개성 상인이 아니라 세종대왕 대에 굉장히 많은 과학 도구들을 만들었던 장영실(蔣英實, ?-?)이었다고 하는 가정으로 꾸며져 있는 소설도 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 때 뛰어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던 인물인데 임금이 탈 가마를 잘못 설계했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공적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장영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다크 에어리어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장영실이 이탈리아로 가서 루벤스가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의 모델이 됐다는 이런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OTT에 글로벌 콘텐츠로 제작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이 글로벌 콘텐츠로 제작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의 관계망에 대한 상상은 당시 역사를 시대적인 제약을 분명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한 호기심, 그다음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다른 소설로나 영상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관계망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산, 디아스포라의 역사일 텐데요. 지워진 자에 대한 재현 욕망과 글로벌 로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한국의 이민사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60년에서 1910년까지 조선조 말기에 정치적 혼란, 기근, 빈곤 등을 피해 1860년대부터 연해주. 연해주(沿海州)는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있고요. 만주, 중국, 그리고 미국에 소속돼 있는, 속해 있는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로의 이주가 1기에 해당됩니다. 2기는 1910년에서 45년의 시기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토지와 생산 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로 가거나 일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3기는 1945년에서 62년까지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1962년 정부가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이전까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제가 혼혈 아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혼혈 아동이나 미군과 결혼한 미국 여성, 그리고 학업을 위해 공부를 하는 학생 등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걸 또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4기는 이민의 문호가 개방돼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입니다. 정착을 목적으로 한 집단 이민

의 사례도 있는데요. 1963년 103명의 브라질 농업 이민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1905년에 멕시코 이민 사건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린 1,033명의 이민자는 아주 가슴 아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의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 강좌를 보완하면서 더 읽을거리로 1905년 멕시코 이민 사건을 다룬 세 편의 한국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꽃>은 본 강좌에서 얘기될 예정입니다만 그 외 신소설 <월하가인>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한 주요섭(朱耀燮, 1902-1972)의 <구름을 잡으려고>도 이를 다루고 있으니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조(李海朝, 1869-1927)의 작품 <월하가인>이 실려 있는 작품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구름을 잡으려고>라고 하는 주요섭의 1935년 작이고요. <검은 꽃>이 아주 최신의 김영하(金英夏, 1968-)의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이 모두 1905년 멕시코 이민 사건에 속아서 고초를 겪어야 했던 한국의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상과 배반의 역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아 이민자들의 숫자를 지금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글로벌 로드라고 하는 건 강의자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설명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간 것일까요? 지금 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 800만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전 지구에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강제 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은 더 폭넓게 이주자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어원은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진의 <파친코>도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재현한 소설이고요. 이것이 애플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재미 한인이 제일 한인, 자이니치의 4대에 걸친 삶을 조명했는데요. 이 <파친코>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들에 의해 쓰인 코리안계 문학도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어떻게 보면 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갖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사건부터 도중에 예기치 않은 만남과 갈등, 고난과 시련, 결말의 해피엔딩 혹은 비극은 바로 길 떠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현재 사진에서 보이듯 중국과 중동 지역의 이주는 줄어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 미국, 일본이 압도적인데요. 이것을 지리적으로 가깝다, 그런데 미국은

멀잖아요. 지리적인 근접성 못지않게 한국이 거쳐 온 격동의 역사와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이민 사기에서 드러나듯 이주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끝없는 좌절, 체념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주의 경로는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헤로니모>입니다. 영화 <헤로니모>는 2019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헤로니모>는 쿠바 한인 2세가 어떻게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헤로니모의 아버지 임천택은 나이 2살 때 아까 멕시코 이민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홀어머니를 따라 멕시코 이민 사기로 에네켄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1921년에 멕시코를 떠나서 쿠바로 이주한 후에 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하려는 독립운동을 지원했지요. 그리고 임천택(林千澤, 1903-1985)의 아들,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로니모, 한국 이름 임은조(1926-2006)입니다.

헤로니모는 카스트로(Castro)와 대학에서 만나게 되고요. 쿠바 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 부자의 2대에 걸친 이야기를 재미 한인인 감독 전후석이 <헤로니모>에 담았습니다. 우연히 쿠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헤로니모의 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영화는 탄생했는데요. 디아스포라의 예기치 않은 인연은 이렇게 글로벌 로드로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빨치산을 다룬 강좌도 있는데요. 북한의 항일 빨치산 신화, 유격대 신화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빨치산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항일 빨치산을 근간으로 해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면서 항일 빨치산을 모르고서는 북한의 건국 과정, 북한의 이후의 세습 과정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주차 강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항일 빨치산의 3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지요.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대표적인 공적 기억이자 기록으로 강조되고 있고 이 항일 빨치산의 공적을 기리는 혁명열사릉은 세습 통치를 바로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에 항일 혁명가들의 무덤이 있고요. 유적, 유업을 살린다고 하는, 살리기 위해선 세습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화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체조 아리랑은 항일 혁명 투쟁에 부리를 둔 집체무용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항일 빨치산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보는 눈, 브레히트(Brecht, 1898-1956)의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으로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브레히트는 이렇게 이 시에

서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 속에는 왕의 이름만 나와 있다.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해 왔을까? 만리장성이 준공된 날 밤에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는가? 시이저는 갈리아(Gallia)를 토벌했다. 적어도 취사병 한 명쯤은 그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히트는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에서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문 없는 삶은 항상 현상 유지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기성의 부당함, 불평등, 부정의에도 익숙해지는 것이죠. 만리장성이 준공된 날 그것을 만들었던 벽돌공의 이름과 정체는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나폴레옹(Napoleon, 1769-1821)의 업적에서도 나폴레옹이 업적을 세울 수 있도록 했던 취사병 정도도 어느 정도는, 취사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겨져 있지 않는 것이죠.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은 바로 이 의문에서부터 역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강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참고문헌】

- 베르톨트브레히트(Bertolt Brecht), 김광규 옮김,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마당, 1999
- 전후석감독, 영화 <헤로니모> <https://play.google.com/store/movies/details?id=oXhJGKFseLA.P>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서동만, 남기정옮김, 《북조선-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돌베개, 2002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3/Bertolt-Brecht.jpg/329px-Bertolt-Brecht.jpg>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3년째 중단"(RFA), 연합뉴스, 2016.07.05.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2/Revolutionary_Martyrs_Cemetery.jpg
- 국제고려학회, 코리아학
문헌데이터베이스, https://www.isks.org/DBMS/data/file/database/1013444255_BgrlOUXd_81dd49b98bc98fda9b88bc27e0b1b0159e1b8ec5.jpg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http://file.koreafilm.or.kr/poster/00/05/34/DPA000999_01.jpg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http://file.koreafilm.or.kr/poster/00/05/37/DPA001011_01.jpg
- [餘白] '코리안 디아스포라 예술관' 건립에 힘 모아야, 월드코리아, 2020.07.01.
- YES24, <http://image.yes24.com/goods/112894637/XL>
- YES24,
https://image.yes24.com/YES24ViewerDatas/Z1_LT/A10/B96/95578_L/g2pc3uxyvwcdpqhe.jpg
- YES24,
https://image.yes24.com/YES24ViewerDatas/Z38_LT/A372/B3713/3712137_L/qn0nbys10uyle2v301.jpg
- 영주시 인삼박물관 '인삼, 세계와 만나다' 특별기획전 개최, 경북일보, 2022.10.04.
- YES24,
https://image.yes24.com/YES24ViewerDatas/Z152_LT/A1516/B15153/15152663_L/hos36dweh5uafm9901.jpg
- 이마무라 도모, 《인삼사(人蔘史)》 7, 조선총독부전매국, 1934
-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2012. 2), 양정필, 한국역사연구회
- 한영철, 최흥록 《동의보감》, 금성출판사, 2018, 표지 및 1-3면
- VISIT SEOUL,
https://korean.visitseoul.net/attractions/%ED%95%9C%EC%9D%98%EC%95%BD-%EB%B0%95%EB%AC%BC%EA%B4%80_/4632
- 허준박물관소장, <http://m.heojunmuseum.com>

Lecture

1차시 역사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

In this class, we will examine the genre of historical fiction and its significance. The topic of this class is historical fiction: is it history or is it fiction? Historical fiction spans across both history and fiction. When we start to consider the boundaries of history and fiction, the debate continues endlessly. Here, we approach this topic on a very common-sense level. History values past facts, while fiction is based on imaginative creativity. Historical fiction must respond to these dual demands, creating believable stories about the past by using both historical facts and fiction. These constraints have kept historical fiction on the periphery of the literary world.

However, conversely, these constraints can also be considered as a unique driving force that pulls historical fiction forward. Therefore, historical fiction writers present a time frame of 40 to 60 years as the stage for historical fiction, in order to secure their own territory while avoiding controversy. In other words, they choose a period two to three generations prior as the backdrop of historical fiction. Two or three generations prior means there are still some historical records, but there is still room for negotiation for the parts that have been left blank. This means being faithful to historical facts while filling the gaps with fictional imagination.

This viewpoint assumes that history and fiction are separate fields with different goals. Such perceptions and prescriptions are being questioned in new trends, but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historical fiction has developed within these constraints.

The Dark area, is it the threshold of historical fiction? Fleishman's <The English Historical Novel> explains that a period of about two to three generations ago is a good time for historical fiction to deal with. He sees

limitations in conveying the past accurately and truthfully. Even if historical records and materials still exist, not all of them are preserved. So, historical data is inevitably partial and fragmented. This is a difficulty not only for historians but also for historical fiction writers.

However, he also sees this as provid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is is becaus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historical fiction can vary depending on how writers fill and reproduce these gaps. If we could know everything about the past perfectly, there would be no motivation or desire to explore historical facts. People can activate their intellectual curiosity and imagination only when there are gaps and unknown areas to be filled. The historical imagination mentioned by Fleishma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ctional imagination to fill the gaps and rifts in historical records. That's why it's called historical imagination. To vividly and realistically convey past events, the domain of the imagination is necessary. However, Fleishman argues that this historical imagination must have certain limitations. It is limited to supplementing the dark area, where there are few records, with imagination, like weaving fabric.

He believes that fictional imagination that freely transforms and adapts past history must have limits, and exceeding them is beyond the writer's authority. This statement suggests that the expression "historical imagination" itself already contains its meaning, rather than calling it "fictional imagination."

Gyorgy Lukacs(1885–1971) noted about historical fictions as pre-history. I presented a slide with a photo of Lukacs, and it is impossible to discuss historical fiction without mentioning him. He was a Hungarian literary philosopher and a notable Marxi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1918 Russian Revolution, he joined the Hungarian Communist Party and served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the Hungarian Revolutionary Government. Of course, this revolutionary government was short-lived.

His representative work, <The Historical Novel>, was published in 1937, and it is very meaningful in that he made the first theoretical attempt to discuss historical fiction in an era when there was little research on this field. As the

claim of his first theoretical attempt suggests, 〈The Historical Novel〉 combines theory and reality. The quote I presented on the slide was what he discussed by referring to Walter Scott's (1771–1832) view. The key here is that the subject selected to evoke contemporary interest must b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and customs of our current era. In the terminology used in 〈The Historical Novel〉, this is called "anachronism." This means that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deviate from the era in which it occurred.

However, Lukacs added a remark to this story. He said that it is true that this freedom must have its limits. This statement means that because history prior to our own experience must be experienced as such, it inevitably needs to b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our time, but it must also be harmoniously translated.

Therefore, this is the true meaning of Lukacs' historical novel as a modern prehistory. Gyorgy Lukacs warns that we should not unconditionally transform or adapt past facts according to our contemporary language as we see fit. Then let's take a look at a part of Walter Scott's 〈Ivanhoe〉, which Lukacs praised as the pioneer of historical novels.

Walter Scott is considered to have created the modern format of historical novel. And the person who most actively evaluated Scott's works was Lukacs, who developed his theory of historical fiction through Scott's works. Therefore, to understand Lukacs' theory of historical fiction, it is impossible to do so without understanding Walter Scott.

The slide presented here also discussed heroes and outlaws of the people, which is covered in the fifth week of this course. In addition to depicting the upper class of kings and nobles, Scott also introduced the legendary character Robin Hood from folklore. Although Robin Hood is not the main character, Walter Scott recreates the life and culture of the common people of that time through Robin Hood. Lukacs pointed out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s essential in forming the totality of people's lives.

He argu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present history comprehensively with only the lifestyle of the lower class or the taste of the upper class.

Thus, Scott introduced the legendary figure of Robin Hood and made the protagonist Ivanhoe a fictional character, rather than a historical or realistic one. Although Ivanhoe is neither a hero who can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nor an outstanding figure, Walter Scott created this fictional character to serve as a transitional figure, showing the movements of King Richard the Lionheart and the aristocratic class at the time.

This is the very character that Lukacs described as a "middling" figure. While the historical record does not contain King Richard's inner thoughts, the use of fictional imagination allows for a vivid and concrete depiction of his character. From this perspective, the role of the middling character in Lukacs' historical novel is crucial, as it provides a means of realizing the inner life of historical figures, and in doing so, acquires the comprehensive totality of the era. This aspect can be considered the core of Lukacs' theory of historical fiction.

History is also a form of text. We're going to look at emergent and deconstructive understandings of New Historicism. The traditional view of history, which separates the boundaries of history and literature and claims that literature fills in the gaps that history cannot record, has been criticized by New Historicism and Postmodernism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s an example of New Historicism, the slide provides a lengthy explanation, citing the figure of Greenblatt (1943-)

who argued that history and literature do not merely reflect or excavate the past, but construct, create and invent it. but are constructed, created, and invented. The restoration of history, restoring history as it was in the past, is not favored by new historicists, even the term restoration.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restoration presupposes that the past can be completely recovered in the present, with history remaining immutable. New historicism views existing records, fragmented records, and artifacts as products of a specific period and situation in which the social, political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the time are reflected.

For example, records of the royal family, that is, records of the winners, cannot go beyo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ruling class. Other groups

and individuals are either not recorded or marginalized.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records of royal or victorious families. Records of the periphery and minorities in history are relatively scarce and incomplete.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constructing their history only based on empirical verification and historical records of positivism. The new historicists' argument that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also affects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novels. In short, one can question whether historical novels are truly free from the history of the winners.

Do you see the child on the right? The child wearing a hat is a biracial orphan named GI Baby John. GI stands for Government Issue, which refers to American military personnel, meaning supplies or equipment issued by the US military. John was born to a father of an American soldier and a mother who was a sex worker. So, he was born between a US soldier and a sex worker who provided sexual services to US soldiers. But he was abandoned early and lived in an orphanage.

A high school student named Kim Yŏng-yong, who paid attention to this biracial orphan, was told by a spy that if he brought a biracial child to North Korea, he would be admitted to a higher-level school, sent to study in Moscow, and given a stable job. He took the child to the barbed-wire fence at the ceasefire line, where he was of course arrested by soldiers. He couldn't cross the ceasefire line.

This incident, in which a biracial child born between an American soldier and a Korean sex worker and a poor Korean student attempted to defect to the North, became a big issue at the time. The incident, which was a problem at the time, has since disappeared and been forgotten. I have also written a paper on this incident by juxtaposing it with the contemporary context. In 1958, North Korea released a propaganda message on the rescue of orphans, saying that since the life of biracial orphans or orphans in South Korea was so miserable they would raise and nurture them if they were brought to North Korea.

This incident is about those from low-income backgrounds who wanted to study hard and had dreams of higher education, like Kim Yŏng-yong, who responded to this propaganda and attempted to defect. In the context of such incidents, ethnic Koreans in Japan, called Zainichi Koreans, could not bear the discrimination and humiliation they faced in Japan. As a result, from December 1959 to 1961, over 74,000 of them set foot on North Korean soil. This is known as the enormous Exodus to North Korea. Within this exodus, there were also attempts at crossing the border from South to North Korea.

Therefore, within this context and intersection, a thick description of this photo in Chapter 1 can lead to a new meaning. This complex meaning emerges from the interweaving of elements, such as Korea's US military bases and the structure of the Cold War, base town prostitution, mixed-race orphans, poverty and alienation of the war refugees from North, neglect of biracial children, international adoption, and child welfare. Peripheral history is such that these remaining records can be narrated only after the process of layering multiple layers of interpretations.

Reality is merely a product of its effect. Please take a look at the left text that claims that all realities are reconstructed, and the two pictures on the right. If the reality is unstable and necessarily followed by selection and processing, then it has been argued by New Historians that what is called reality should be seen as “reality effect”. The concept of reality effect is that reality is not a fixed entity but rather an effect of a discourse that is constantly produced and reconstructed. Even when looking at the same object, depending on how it is constructed and presented, it can produce different effects.

The photo on the right is a photo of the bombing of Shanghai in 1937. In the top photo, a child is crying alone in a destroyed station. This gives a dramatic representation of the destruction of Shanghai caused by the bombing. In the photo below, there is clearly an adult next to the child. This is the evidence used to claim that the photo was manipulated to highlight the tragedy of the scene by intentionally focusing on the child and erasing the other people.

This photo was staged, and it has been claimed to be fake. Japanese historical revisionists have used this photo as evidence that there is no proof that Japan committed mass killings of Chines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have also raised the possibility of photo mani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ournalistic ethics, the staging of this photo can certainly be called into question. However, since revisionists do not discuss the photo of this child who was actually injured in the bombing, they also distort history. This slide's photo illustrates

the competition and crisis of authenticity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re is no simple and monolithic history. To further explain, the child in this photo was severely injured. The bombing of Shanghai, as evidenced by this child's photo, falls under the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since it targeted innocent civilians. Similarly, I believe that the indiscriminate bombing carried out by the US military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which they called precision bombing, is also a war crime.

The atomic bomb seen from above in the sky evokes awe and excitement, but on the ground, it was fear and disaster. War is a great disaster created by humanity that destroys all human life, and this is why it can be called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there are several things to consider regarding the reality effect, but concerning this matter, I would like you to find and read more about it in the mentioned text <Our Historical Novels need Theory and Debate>. I will omit this part because it needs further explanation.

By redefining historical novels with the aspect to the reality effect in this way, it's possible to obtain such chart. The four classifications of historical novels ranging from factual to fantastic. So here, on the far right, we have historical narrative, and on the left, we have fantasy beyond the agreed upon reality. The lecturer divided the four classifications of historical novels in this way, ranging from factual to fantastic, when discussing Korean historical novels from the aspect of the reality effect. Instead of saying history, the term historical narrative was used to reflect that history should also be structured like a narrative to raise readers' understanding and empathy.

Therefore, the closer it is to historical narrative, the more people feel it is factual. Thus, people feel that the raw materials that have not been processed or adapted are revealed as they are. On the other hand, the more fictional imagination surpasses the commo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 already know, the more fantastic the historical novel becomes. This is where alternative history comes in,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It also has a connection with science fiction (SF), which uses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like time machines to cross through different eras, includ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is regard, the term "Faction" was coined for a historical drama in the 2000s, which is a perfect Korean combination term, being the combination of the words "fact" and "fiction". Faction refers to a story that is free from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historical records. This trend contributed to the rise of the Korean Wave,

as seen in the drama "The Legend" (T'aewangsasin'gi), which led the trend of Korean-style slang, Faction. "The King and the Clown" (Wang ŭi namja), opened the clown performance for 10 million audience with heightened imagination. "The King and the Clown" (Wang ŭi namja) also showcases Faction's trend. The two men in red clothes are clowns, or male entertainers, representative of the lowest class, called ch'ŏnmin, in Chosŏn dynasty.

The interaction and empathy between the clown and the king were handled well, making it a beloved work among moviegoers. You can check out this work on Netflix. As you watch the film, pay attention to the same-sex affe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male characters, both between the king and the clown and among the clowns themselves. And I hope you could think about how it succeeded as Faction.

2차시 한국 역사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인물과 시점

This lesson focuses on the four turning points and reading methods of Korean historical novels. In other words, if we consider that all history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ts reality effects, then all history is constructed based on this aspect of reality and its impact. In Korean historical novels, the same historical events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characters are composed and the perspective taken. We will explore this aspect in this lesson. The turning points of Korean historical novels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like this.

1900 was a time of national crisis due to the threat of colonization by Japan. In 1905, Japan deprived Korea of its diplomatic rights, and in 1910, the Korean Peninsula was annexed by Japan. In the context of this crisis of national sovereignty, historical heroes from the past were called upon. From 1900s, there has been a preference for characters with superhuman qualities that reflect the intention to overcome crises from the distant past to the recent past.

Examples of such heroes are Ŭlchi Mundök and Yi Sun-sin, who are representative heroes of Korea. Foreign heroes, such as Jeanne d'Arc, were also actively introduced. They were considered essential figures for overcoming and resolving the crisis facing Korea. After that, the heyday of historical novels in the 1930s began to unfold. At that time, there was a revival of interest in Korean traditions and heritage, which led to a boom in historical novels.

Authors of historical novels such as Yi Kwang-su, Hong Myöng-hŭi, Kim Tong-in, and Yi T'ae-jun emerged during this period. These authors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throughout the course. In the 1970s and 1980s, as “minjung” discourse rose,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collective subject of the people. At this time, historical novels were written with various people from the minjung as protagonists.

In the flow of New Historicism in the 2000s, the individualization of history became more pronounced due to economic crisis. The inner pain and conflict that historical figures actually experienced as human beings were highlighted. This is a rough summary of the flow of historical novels. We previously mentioned the crisis of sovereignty and the enthusiasm for patriotism in the 1900s.

During this time, the conservative Chosŏn Dynasty collapsed, and a forced transition to modernity occurred. The modern nation-state-centered world order became the normative order. Unlike the Sinocentric order centered on China, the modern nation-state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sovereign state that was independent. Conversely, if the establishment of this sovereign state failed, it could lead to colonization in the era of imperial domination.

The real threat posed by imperial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00s, when the establishment of a sovereign state was an urgent task, further intensified the sense of crisis. This sense of crisis dominated the public discourse at the time, and literature could not help but reflect this trend. Therefore, this is mentioned in this example that literature was attempting to create a new culture. Historical biographical fictions are a good representa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Traditional forms such as chronicles ("chŏn") were used to emphasize patriotism and independence by presenting national heroes and historical examples of overcoming national crises.

These historical biographical fictions strongly reflected the spirit of the tim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iterary forms and provided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novels. Various historical biographical fictions from this time can be examined as examples. At the top is a serialized newspaper novel about Korea's hero, Yi Sun-sin, followed by other historical biographical fictions below. The story about Yi Sun-sin was a natural choice as he is one of Korea's most famous heroes. Below that, there is a book cover describing foreign heroes and great men. This 〈Sŏsa kŏn'gukchi〉 entitled as "The Political Novel" is a story about William Tell, a hero well known to all of you. The story is about a country called the "Sŏsaguk," which is an old Korean expression that refers to Switzerland.

In the 12th century, Switzerland was occupied and suffering under neighboring Germany. At this time, the hero William Tell was born with heaven's help to save his country in crisis. This story is a Chinese adaptation of the original and is sold as a political novel. The term "adaptation" or "pōnan (番案)"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A "adapted" novel is a foreign work that is brought over and translated into a domestic novel, changing elements such as customs, place names, and people's names to fit the domestic culture.

As we have examined the 1900s like this, now we can move on to explore the rise of fascism and the heyday of historical novels in the 1930s and 1940s. In the 1930s, historical novels were very popular, and intellectuals' opinions about this trend were complex. Sin Nam-ch'öl (1903-?), a prominent socialist thinker, believed that retrogressive tendencies were not unique to Korea but rather a global phenomenon, manifesting in new forms that differed from those in the past. He harshly criticized such romantic retrogressive ideology as personal, subjective, and even fascist.

During this time, Yi Kwang-su, Kim Tong-in, Pak Chong-hwa, and Yun Paek-nam were prolific writers of historical novels and wrote numerous problematic works. As we continue with this course, I ask that you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period of 1930s and 1940s. In this class, we also briefly delve into historical novels from the 1930s to 1940s, and this is because the 1930s and 1940s were truly the golden age of historical fiction in Korea.

Despite criticisms from socialist intellectuals who believed that the boom in historical fiction was intertwined with the rise of fascism, during the 1930s and 1940s, Korea was under the oppressive rule of Japanese colonialism, which made it difficult to openly depict the realities of the time in realism novels. Some critics argu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era required authors to use historical novels as a means of indirectly criticizing and exposing the oppressive reality of the time.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boom of historical novels during this period was a product of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sought to criticize and expose

the oppressive reality of the time through a circumventing narrative of historical novels. These two perspectives on historical fiction during this time can be seen as reflections of the societ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era.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re was a resurgence of historical novels in Korea, coinciding with the rise of minjung ideology. The 1970s and 1980s were a period in Korean history that deserve great attention, as it was a time when minjung ideology became dominant. At that time, Korea was under the rule of military dictatorship. Therefore, it was also a period when challenging movements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were very strong. The growth of the working-class, along with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ization, were driving forces behind this trend.

However, there were debates about the definition, character, and leadership of the minjung. The definition of the term, the nature of the minjung, and whether critical intellectuals, or petite bourgeoisie middle-class c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were all topics of heated discussion. Despite these controversies, minjung ideology served as a powerful counterpoint to the ruling regime. As the example presented on the slide shows, minjung ideology became a topic not only in literature and the arts but also in academic, social, and historical fields.

The hegemonic nature of minjung ideology, which represents the entire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 possessions, also influenced historical fiction. Works such as <Chang Kil-san> and <Taebaek Mountain Range>, which you will examine in this course, are products of this era.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based on the collective agency of the people was raised. However, it has also been criticized in the 21st century for ignoring differences in generation, gender, and social class and for imposing the notion of "minjung" too narrowly. Nonetheles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this oppressive regime retains its significance as a product of this era.

We will also examine the diversific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context of the New Historicism of the 2000s. Historical costume dramas have been on the rise in Korean films since the 2000s. The term "sagŭk" used in the example refers to a historical drama or film based on historical events.

During this time, a Korean term called "faction" emerged, which is a combination of "fact" and "fiction". Historical fiction is a genre that is born out of the tension between fact and fiction, but in these films, directors and writers can freely exercise their imagination while using historical events as the basis.

This is also true for many TV dramas that are referred to as "faction". In addition to the craze for historical dramas in film and television, there was also a great demand for popular history books in the publishing market. Popular history books were even more popular than novels at the time. Works such as <The Da Vinci Code>, <The Song of Swords>, and <Hwang Chin-i> became very popular in this trend. People started to read popular history books just like they read novels based on historical events.

Here, we can see examples such as <Allow a Dance Hall in Seoul>, If you look at the cultural landscape and historical narratives of everyday life, there are historical books that represent typical storytelling history, such as <The Biography of Che Guevara>, <Allow a Dance Hall in Seoul>, <The Affair of the Diamond Necklace and the Myth of Marie Antoinette>, and so on.

Che Guevara is a famous socialist revolutionary, whom you are likely to be familiar with.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till has a strong Cold War mindset, the book <The Biography of Che Guevara> has gained popularity. <Allow a Dance Hall in Seoul> is also a very interesting book. <The Affair of the Diamond Necklace and the Myth of Marie Antoinette> is also very entertaining. If you are interested in popular history, you might want to read them.

Through these historical novels and books, we can also observe the emergence of "new history" trend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historical fiction and history writing become blurred. I titled here as historical as a hybrid genre that combines fact and fiction, and the proper nouns for historical figures competing with preexisting information. As I mentioned earlier, the same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can be perceiv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historical novels are constructed. Here, we can see Yi Kwang-su's <Tanjong aesa> (The Tragic History of King Tanjong), which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ee it again in this course.

In this novel published in 1930, Prince Suyang deposes his young nephew and takes the throne, who later becomes known as King Sej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istory already have some background knowledge about King Sejo. Based on the initial information that he deposed his young nephew and executed him under house arrest, one can see him as a ruthless authoritarian figure. On the other hand, some may empathize with him, thinking that it was an inevitable choice since the young king was causing too much confusion in ruling the country.

Historical figures like Prince Suyang, or later King Sejo, naturally have some preexis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m. Based on this, historical fiction writers need to reproduce these figures. They could try to exclude emotions and evaluations as much as possible, but doing so would reduce the dramatic tension of the novel. If this were the case, the novel would not be much different from a history book.

Then, how did Yi Kwang-su's <Tanjong aesa> present his own perspective on the events? In the novel, the story is on the side of the young King Tanjong, painting a negative portrait of his successor, King Sejo, who was responsible for his dethronement and death. Prince Suyang is depicted as a violent and dangerous man, who, at the age of 14, had already gained a reputation as a troublemaker for kicking down a wall and running away after being caught sleeping with a married woman. From this perspective, King Sejo is portrayed as a violent and dangerous figure. Moreover, <Tanjong aesa> also portrays the "Six Martyred Ministers" (sayuksin) against King Sejo, in a sympathetic light. Yi Kwang-su describes them like that.

"Six Martyred Ministers" refers to the six loyal subjects of King Tanjong, who were executed by King Sejo for their failed attempt to restore Tanjong to the throne. These devoted subjects endured severe forms of torture and punishment, which included efforts to appease them. In a comic adaptation, the "six martyred ministers" nobly refuse Sejo's offer to serve him as officials if they were to acknowledge his authority. In this comic that portrays the "six martyred ministers", King Sejo is depicted as accusing them of plotting a rebellion while receiving a salary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ix martyred

ministers, who are portrayed as having never taken a penny,

face their deaths for not swearing allegiance to King Sejo. This presents a sympathetic portrayal of them because they did not pledge loyalty to King Sejo. The common people's reaction is also depicted as very sympathetic towards the ministers. However, can we see such historical reactions through historical records? The records of those reactions are not preserved. Some people could have criticized the six ministers, while others could have felt sorry for them. In the past, historical records did not include the reactions of the people. As the writer focuses on reproducing the sympathetic reactions of the people toward the six officials it can be said that he envisioned this novel with a sympathetic perspective toward them.

Yi Kwang-su wrote the novel with a sympathetic view that competes with pre-exis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historical figures. Indeed, different novels may present historical figure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author's perspective. In the novel, *〈Suyang Taegun〉* (Grand Prince Suyang), written by Kim Tong-in, the protagonist Prince Suyang is evaluated positively. The author wrote this character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reasons for his actions. However, as these aspects will be covered in detail later in the course, we will move on.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there are two primary classifications: the panoramic/bird's-eye view and the microscopic/fly's-eye view. Let's first consider the latter perspective.

This representation involves a microscopic view or what we might refer to as a fly's-eye view. The author's perspective plays a critical role in how they perceive and portray historical events. Depending on their viewpoint, the structure of the novel can vary significantly. In essence, this variance is an essential technique in the art of novel construction. Here, the panoramic and bird's-eye views refer to the perspective of viewing from a high altitude. This is Yu Hyŏn-jong's *〈Tŭlp'ul〉* (Wild Grass), published in 1976.

As I explained earlier, the 1970s and 80s were the era of minjung literature, emphasizing new interest and transformation of the people oppressed by the ruling class. The novel *〈Wild Grass〉* is also part of this trend. The historical period presented in this novel is the time of the Tonghak

Peasant Revolution or the Kabo Peasant Revolution, in which the people revolted. Im Yŏ-sam is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uprising. Therefore, in a panoramic, bird's-eye view that captures the paradigm of the people, this novel concludes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peasant uprising, which may fail now but will rise again, just like wild grass.

On the other hand, the same period of T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lso described from the microscopic point of view. Yet, it focuses the internalized psychology of individuals. Additionally, it features a critical intellectual as the protagonist, rather than showcasing a representative peasant figure. This fly's eye view can be understood as the perspective of an insect. From the insect's point of view, individuals thrown onto the grand historical stage do not necessarily share the same desires or motives. This critical intellectual appears as a member of the noble class who rebels against his father, and even stands against his own class and but with the peasants.

The reason for his rebellion against his own class is not to revolutioniz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asants, but rather because he dislikes the closed and confined situation he finds himself in, rebelling against his father. Through this rebellion, he ultimately rises against the Tonghak peasant leader Chŏn Pong-jun and tragically ends up as a figure who dies at the hands of these leaders. Therefore, twisted desires and betrayals of humans are being depicted. In this aspect,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e same era and characters can be depicted different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concept.

3차시 강좌 가이드 ①,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The main theme of this course is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n historical novels. Historical novels cannot be indifferent to the historical environment or changes, as they are based on historical events. Not onl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ovel, but also the contemporary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author and that of readers like you and me, are all crucial to consider when writing historical novels.

Korean historical novels have been continuously written since the 1900s to the present day. In this process, we are going to deal with many historical novels, but there are many historical novels that I have not introduced. Considering the lecturer's capability and novels' importance, I have structured the first to fifth weeks as follows:

Admiral Yi Sun-sin is the most revered historical figure who is always vying for the top two positions with King Sejong. Even to this day, his popularity has not waned. This popularity is sustained by the continuous production of various representations related to Admiral Yi Sun-sin.

While historical novel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his story, visual media also played an important part. For example, the trilogy movie series on Yi Sun-sin released in 2014, 2022, and 2023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Admiral Yi Sun-sin had an exceptional appeal during a time of crisis. He had to face well-prepared enemies without any support from the court. It was extremely difficult for even the most exceptional military commanders to achieve victory against such formidable opponents of Japan. However, it was Admiral Yi Sun-sin who accomplished this daunting task, which is why he is revered as a great figure in Korean histor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Admiral Yi Sun-sin, it is recommended that you learn more about him through this course. Additionally, you may also want to examine the process and background that led him to be commemorated as

a national hero. This part of the lecture also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mjin War, which was an international conflict in East Asia.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regional context, one can gain a new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Imjin War that may not be readily visible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his photo is the underground exhibition hall located in Kwanghwamun. Although it is dedicated to showcasing artifacts related to the Imjin War,

the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may be somewhat lacking in the exhibition hall. So attending this course and exploring the exhibition hall will provide a much more diverse experience and perspective. This is the War Memorial of Korea, related to the historical traces of Yi Sun-sin and you can see a model of his turtle ship displayed there. Every country has its own war memorials. So, they can be seen as spaces that vividly reveal national identity. In the heart of Seoul, there is a large-scale war memorial near Samgakji. Therefore, one might wonder why Admiral Yi Sun-sin's turtle ship is displayed at the War Memorials. In any case, the Imjin War, which was led by Admiral Yi Sun-sin, was a war. In terms of Yi's achievements, the turtle ship was an indispensable weapon that cannot be explained without mentioning it.

However, the actual turtle ship no longer exists, and it is imagination and inference that fill the gap. The turtle ship was Admiral Yi Sun-sin's secret weapon and key to victory. Although it was a secret weapon, the turtle ship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was instrumental in the great victory at the Battle of Hansan. However, Yi Sun-sin was wrongly accused and put in prison by Wŏn Kyun, and at that time, the turtle ship was completely destroyed, and its existence gradually faded away.

Therefore, the model of the turtle ship was created based on people's imagination and speculation after the fact.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critically reflect on the meaning of war and peace between the reality and glorification of the turtle ship. By 1920 there was even an idea that turtle ship was a submarine instead of an ironclad warship. Although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e turtle ship as a submarine, the legend of the turtle ship had already

been inflated too much.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how we view the reality and glorification of the turtle ship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war and peace. And we should also ask whether War Memorials are unnecessarily inflating the importance of war. In addition to remembering the victories of war, we should also remember the destruction brought about by war and the misery of the people of that time. And in order to establish lasting peace, it would be great if the exhibition included efforts to establish peace and efforts to reflect on the impact of war on people's lives. With such intention, I brought this image of the model of the turtle ship in the War Memorial.

The movie <Hansan: Rising Dragon> depicts a ship called Bokukaisen (沐海船) that resembles an imaginative guardian animal. Japanese people remember the Imjin War as a defeat because they lost in the battles against Yi Sun-sin. How do they represent this event thereafter? Although there are surprisingly few records about the turtle ship and no physical evidence remains, there is a record that refers to it as Bokukaisen. It wa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Mekurabune (盲船). Bokukaisen gained popularity among the general public after being mentioned by Japanese soldiers in the 2022 Korean movie <Hansan: Rising Dragon>.

Bokukaisen refers to a wooden-hulled ship, 沐海船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and it has no special meaning. The image of a mythical creature called Shachihoko, with sharp spines on its back, is said to have been reminiscent of the appearance of Bokukaisen. In the photo on the right, Shachihoko is guarding the roofs of Bokukaisen at Nagoya Castle in Japan. Therefore, if you happen to travel to Japan and visit Nagoya Castle, please take a closer look at the roofs and think "Oh, this is Shachihoko," and understand that the image of the turtle ship was also perceived through this animal.

The left photo is the cover of Katano Tsugio's book,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featuring Yi Sun-sin and Toyotomi Hideyoshi, titled "Yi Sun-sin and Toyotomi Hideyoshi" and the subtitle is "The Bunroku-Keicho War". At that time, the Japanese referred to the Imjin War as the Bunroku-Keicho War,

which is why the book has such a subtitle. The appearance of the turtle ship that the Japanese imagined is quite interesting. Should we say that it has a fierce look in its eyes? Interestingly, the fact that the actual turtle ship does not exist has led to more diverse imaginative representations both in Japan and Korea.

Thus, tradition is impossible without continuity and contemporaneity. Yi Sun-sin is a representative symbol and model that fulfills this. However, it is our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think about how we can more broadly and dynamically revitalize this asset called Yi Sun-sin, reflecting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presenting it in a more diverse way.

This photo is the underground exhibition hall dedicated to King Sejong and the exhibition themed the revival of Han'gŭl. King Sejong is the most beloved historical figure among Koreans, and the creation of Han'gŭl, his Korean script, is still shrouded in mystery, leaving people to wonder how it was suddenly created. The exhibition, which captures the aesthetic beauty of Han'gŭl, is located beneath the statue of King Sejong in Kwanghwamun. As you can see there, various creative designs based on Han'gŭl have been developed, with some creating patterns for clothing and applying it to everyday objects.

During the global pandemic, In Mexico, masks using Han'gŭl were made and distributed to local marginalized groups. The portrait of King Sejong, holding a book written in Han'gŭl and smiling broadly, was created by Mexicans. King Sejong and his era are not only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Han'gŭl, but also with many diverse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King Sejong was a leader who was proficient in both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However, the biggest reason we commemorate King Sejong is because of his creation of Han'gŭl. It is crucial to note that regardless of how well King Sejong created Han'gŭl, if it was not ultimately used, it would not have become a tradition, and Han'gŭl would have eventually disappeared.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the people who used, inherited, and developed Hangul and the fact that many of them were women.

In this lecture on King Sejong, I suggest that you take a closer look at how wom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which could allow you to see the exhibition from a new perspective. I called the Chiphyŏnjŏn (Hall of Assembled Worthies) the central stage of the mystery surrounding the creation of Han'gŭl. The creation of Han'gŭl was proclaimed to have been made by King Sejong one day, which created a mystery that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interest by authors. Therefore, the novel <The Deep-rooted Tree>, which uncovers the dark area that has not been clarified by records, using plausible imagination, what you can see on the left of the screen.

This novel was influenced by <The Da Vinci Code> and also drew inspiration from Umberto Eco's <The Name of the Rose>. <The Name of the Rose> is a novel that assumes the existence of a comedy theory that is not found in Aristotle's "Poetics," which only contains a theory of tragedy. The novel employs a mystery and a detective narrative to solve a murder case. The core theme of this novel is not the murder case itself, but rather the clash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established order that seeks to monopolize and prohibit the desire to understand comedy, and the universal intellectual curiosity and desire to know that arises about something prohibited.

This also deals with the issue of letters, and how we view what we call the written word, from a broad perspective. <The Name of the Rose> is centered around a closed and isolated space called a monastery. <The Deep-rooted Tree> takes place in a location called the Chiphyŏnjŏn, which was the birthplace of Han'gŭl and explored the world of letters. The Chiphyŏnjŏn is a place where a struggle occurred between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secret of the creation of Han'gŭl and those who sought to uncover it, ultimately leading to the life-threatening battle between those who tried to keep it and those who tried to destroy Han'gŭl.

Therefore, both the monastery and Chiphyŏnjŏn can also be seen as historical examples of how space regulates human consciousness. As you may already know, Kyŏngbok Palace is a very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Korea. Inside of the Kyŏngbok Palace, there is a building called Sujŏngjŏn. There is no Chiphyŏnjŏn building now. Since the Sujŏngjŏn building was the site of the

former Chiphyŏnjŏn, if you visit Kyŏngbok Palace after taking this lecture, you can check the Sujŏngjŏn building and appreciate that it is the background for the birth of the novel <The Deep-rooted Tree>, and that it was the actual location of the Chiphyŏnjŏn. This could be a much richer experience.

This is “the restored tomb of the famous kisaeng Hwang Chin-i...” As it is located in North Korea, we cannot freely visit there, so I ended the sentence with ellipsis. During the Chosŏn Dynasty, kisaeng was of the lowest class known as “ch’ŏnmin,” which literally means the lowest people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Most kisaengs during that time were affiliated with government offices and served as entertainers at royal banquets and events for male aristocrats, providing music, dance, and other cultural performances to liven up the atmosphere. This course also covers historical novels on kisaeng.

In 1908,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Kisaeng Regulation, the social status of kisaeng was repositioned as modern kisaeng from their previous status as lowly born government slaves. While they were freed from their previous status restrictions,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enforced a permit system through the Kisaeng Regulation. Therefore, they had to join the Kisaeng Association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also undergo periodic venereal disease tests, which most kisaengs detested.

Nonetheless, with the birth of modernity, kisaengs underwent an historic transformation into “freelance” laborers, which is a form of service and commodity labor. I’d like you to explor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se changes as you follow along with this lecture. In this process, new kisaengs emerged as cutting-edge modern women of the time. These new kisaengs were portrayed in various ways, such as young stylish women with bobbed haircut, called “tanbal rang” or appearing as actresses or singers. You can learn more about this by taking the course.

Furthermore, an important point here is the concept of “myŏnggi,” or famous kisaeng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myŏnggi is Hwang Chin-i, who is well-known to all Koreans. In 2011, North Korea restored Hwang Chin-i’s

tomb, as shown in the photo I presented. The tombstone reads "Myŏngwŏl Hwang Chin-i." However,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Hwang Chin-i asked to be buried on the streets, but I cannot confirm whether this tomb is located on the street or not, as I couldn't visit there.

Hong Sŏk-chung's historical novel, "Hwang Chin-i," is a North Korean historical novel. The erotic illustrations in the novel, and Hwang Chin-i's life intersected with those, make me think, somewhat whimsically, that I too would like to visit North Korea sometime soon and see for myself how Hwang Chin-i's tomb has been restored. Kisaengs als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t Tapkol Park wher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first "Manse" protest were announced. If you are learning Korean history,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is an essential part of it.

It was a nationwide uprising against Japan's unauthorized rule, and a mass movement of the people. Kisaengs also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In Suwŏn in Kyŏnggi Province, 33 righteous kisaengs were restored to their rightful places in history, like this. The March 1st Movement was symbolized by the 33 patriotic representatives who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shouted "Manse" before being arrested by Japanese police, making the number 33 histor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 33 restored kisaengs also hold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y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These kisaengs were on their way to the hospital for a health inspection, which included venereal disease testing. The colonial government required them to undergo the examination, but the kisaengs found it to be a deeply humiliating act. In the midst of their usual anger and the fervor of the March 1st Movement, the 33 kisaengs raised their voices of "Manse" protest, facing the Japanese police right in front of them.

The list of the 33 kisaengs who were found and restored can be seen on the left. Meanwhile, young students gathered in T'apkol Park, also known as Pagoda Park at the time, where they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shouted "Manse" for the first time. The octagonal pavilion in the park, called "P'algakchŏng" is where the Manse demonstra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first began, T'apkol Park in Seoul holds such historical significance.

It is recommended that you visit T'apkol Park in Chongno and try to find the octagonal pavilion, wher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first "Manse" cry were made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You can imagine that the kisaengs were there with numerous young students and people shouting "Manse" together. They then moved to Taehanmun Gate,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restoration work but was filled with cheers and shouts from the people at the time. Reflecting on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along Seoul city might also be meaningful. At that time, kisaengs engaged in their social reality were referred to as thoughtful kisaengs at the time, and these 33 virtuous gisaengs were also considered as embodying the spirit of thoughtful kisaengs.

Between the Great Thief and the Righteous Outlaw: the legend and trace of Im Kkŏk-chŏng, a folk hero. I made this title for our discussion about outlaws. Outlaws exist in both East and West, but the problem is that they would have been ordinary people who would not have become thieves if they had been living peacefully. The corrupt upper class, oppression, and greed become the background for the emergence of outlaw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outlaws necessarily share their food and property with the people. Punishing and getting rid of the wicked upper class alone makes the suffering people cheer for the outlaws. They reflect their own dissatisfaction and resentment through these outlaws and gain satisfaction.

As mentioned earlier, in the west an outlaw is a figure of justice like Robin Hood. Robin Hood was a symbol of an upright thief in the West rather than a special individual. In Korea, such a great outlaw is Im Kkŏk-chŏng. Despite the historical records in the Chosŏn Dynasty only reflecting the upper class's view that it was a big problem that they could not catch him quickly, the common people did not see it that way. That is important thing to note.

The Kosŏkchŏng in the Hant'an River of Kangwŏn Province on the right is a historic site about Im Kkŏk-chŏng, even though the real Im Kkŏk-chŏng never actually came here. It is that Im Kkŏk-chŏng turned into a fish called "kkeŏkchi" after defeating the government soldiers and are still guarding themselves. Therefore, regardless of historical records, the Kosŏkchŏng can be

seen as a historic site that embodies the people's resilience and hope.

If you ever visit Kangwŏn Province, you can visit this place and think about this site where the people have created a myth and legend about Im Kkŏk-chŏng even though he never actually came here. This is the part where I explained about the “ch’ŏnmin”. As we progress through the course, we can think about which historical figures appear within the class system.

4차시 강좌 가이드 ②,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This class also serves as a guide for the main lectures that I will be teaching in this course. In addition, I will provide supplementary materials for these classes, including readings that I suggest for further understanding.

This is 〈Tongŭi pogam〉, the first Korean medical book to be register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Museu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is the book 〈Tongŭi pogam〉 written by Hŏ Chun. 〈Tongŭi pogam〉 is a classic medical book in Korea and is still an important reference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2009, the book 〈Tongŭi pogam〉 was register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reaffirming its significance. Although 〈Tongŭi pogam〉 was already a significant medical book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t was the novel 〈Tongŭi pogam〉 by Yi Ŭn-sŏng that made it common knowledge to the public.

The novel 〈Tongŭi pogam〉 was published in 1990 after being serialized in a magazine. This book attracted tremendous popularity, selling over four million copies and completely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towards 〈Tongŭi pogam〉. Based on this book, the drama "Hŏ Chun" was made and achieved the highest ratings in Korean historical dramas, and overall ranked fourth among all dramas, showing its immense popularity.

I have chosen this work as an excellent example of how a cultural heritage can truly shine when it is inherited and developed in a modern context. The reason that 〈Tongŭi pogam〉 was able to become a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was due to its focus on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care.

The meaning of 〈Tongŭi pogam〉 for us lies in reminding us of such spirit of healthcare, as public sectors continue to be privatized and commodified in the wake of neoliberalism current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the medical sector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At the core of the 〈Tongŭi

pogam》lies the spiri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which aimed to promot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eople, and which every literate person was expected to be familiar with. I would like to emphasize this point once again as a guide.

The picture on the right is the Museu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Seoul,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and view Korean medicine and its history, including 《Tongŭi pogam》. Exhibition halls related to Korean medicine are available on the first to third floors, making it a great place to visit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It is said that the direct descendants of Hŏ Chun, who wrote 《Tongŭi pogam》, are living in North Korea, and I wrote about 《Tongŭi pogam》 as a North Korean historical novel. Hŏ Chun's direct descendants are assumed to reside in North Korea now. Hŏ Chun's 10th-generation descendant is said to have moved to Haeju in Hwanghae Province, which is currently part of North Korea. Therefore, his direct descendants are now in North Korea. Even in North Korea, 《Tongŭi pogam》 is considered an important cultural asset.

According to research, 《Tongŭi pogam》 is considered a "social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 in North Korea. This refers to social and cultural objects and phenomena that can be used for tourism and tourist attractions. This type of resource are used as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museum resources. Since the 1980s, North Korea, which has increasingly opened up to external travel and tourism, has evaluated 《Tongŭi pogam》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among the social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s and exhibited it.

In contrast, historical novels about it were published later than in South Korea. In Korea, the novel 《Tongŭi pogam》 was published as a standalone book in 1990, while in North Korea, a full-length historical novel about it was published by Kŭmsŏng Publishing in 2018. I am very curious to know which museum in North Korea is exhibiting this 《Tongŭi pogam》, but I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it. It would be nice to have some research on this topic, but it has not been done yet. However, let me introduce the author's epilogue in the North Korean novel 《Tongŭi pogam》, which reads,

"The 《Tongŭi pogam》, one of the most precious three classics of Korean

medicines that will b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is a precious treasure of the nation, was a total reflection of the life of the medical practitioner Hŏ Chun, who devoted his burning passion, warm heart, and struggling body and soul to his country and people, and his entire life was undoubtedly a treasure of life, or 'pogam' itself." Since this course does not cover North Korean historical novels, I have provided this explanation as a guide for you here. I believe that the popularity of the drama "Hŏ Chun" in South Korea may have influenced the historical novel <Tongŭi pogam> in North Korea. North Korea might have worried that all would have been all taken away by South Korea, so North Korea could have hurriedly claimed <Tongŭi pogam> as its cultural heritage

and turned it into a historical novel. This is my conjecture. In this section, I cover Korean ginseng, its scientific name *Panax ginseng*, and Kaesŏng merchants. I discuss the Korean ginseng and the stories of great ginseng merchants. Ginseng is a representative herbal medicine in Korea and is also a very popular health food. As such, it is considered as important as rice to Koreans. However, while preparing for this lectur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any parts I did not know. The main producing areas of ginseng are in East Asia and North America.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geographically connected like this. so I had assumed that East Asian ginseng would look the same in both countries. However, Imamura Tomo (1870–1943) compiled a seven-volume book on ginseng, which can be seen in this course. Imamura Tomo's materials show that the forms of ginseng are different. In the photo on the left, you can see that ginseng from the Chinese mainland, specifically from Liaodong region, has very short roots compared to American wild ginseng from North America,

which has many fine roots. In contrast, Korean ginseng, also known as Koryŏ ginseng, looks so similar to humans that it triggers humanistic imagination about whether its efficacy is significant. Although studies that scientifically prove its efficacy continue to be published, the legends and myths about ginseng have been passed down due to the appearance of Koryŏ ginseng being so similar to humans.

Imamura Tomo also includes myths and legends in his book,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from Japanese. There was a highly popular drama called "Hometown of Legends" in Korea. The title refers to various versions of stories related to myths and legends. Among its stories, there is a famous horror episode with the line "Give my leg back!". There was a rumor that if one cut and cook the leg of a corpse, it would heal the sick, and one person went to get the leg. While carrying the leg, he heard footsteps behind him and a voice saying "Give my leg back!" and chased him all night. When he finally escaped and cooked the leg, he found out that it was actually the root of ginseng. This story may have originated from the resemblance of ginseng to the human body.

Ginseng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dentity of the Kaesŏng merchants. The picture on the right is a photograph of famous figures of Kaesŏng merchants. This story should be referred to in this course. Through the ginseng expo, we can see the global distribution and movement of ginseng. Currently, most of Korea's ginseng is produced in the southern region, so ginseng-related festivals, exhibitions, and museums are also mainly located there. In particular, the city of Yŏngju in the southern region has an ginseng museum and hosts a ginseng expo to exhibit the history and artifacts of ginseng.

Yet, in the photo, you can see Louis XIV and information about European pharmacology. Ginseng spread beyond East Asian trade and reached Europe. Earlier, I showed you wild ginseng from North America, which resembles East Asian ginseng. When ginseng was discovered in North America, it caused a "ginseng rush" that was comparable to the gold rush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The global trade of ginseng contributed to the fame of the Kaesŏng merchants, stimulating the imaginations of writers.

One interesting example is the painting of "a man wearing hanbok," drawn by Peter Paul Rubens in the 17th century, which is surrounded by various stories. In this lecture I have presented a photo of "Man in Korean Costume" that Rubens drew, and I have introduced a story that this man was a Kaesŏng merchant in Venice imagined in by O Se-yŏng's historical novel, <Kaesŏng

merchant in Venice), in this lecture. Another interesting speculation is shown in Yi Sang-hun's historical novel, that imagines the man in hanbok not as a Kaesŏng merchant, but as Chang Yŏng-sil (蔣英實,?-?), who invented many scientific tool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Chang was a person who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but he disappeared completely from public records after being accused for poorly designing the king's palanquin. Therefore, the final fate of Chang Yŏng-sil is unknown, making it a "dark area" of history. However, this novel speculates that Chang went to Italy and became the model for the man in hanbok painted by Rubens. This imaginative novel is scheduled to be produced as a global content on an OTT platform and even features Leonardo da Vinci.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to see how this novel will be produced as a global content.

Therefore, the imagination of such globalized networks despite the clear temporal constraints of the era, fueled by great global curiosity and creative imagination, suggests that this could lead to the continued production of other novels or audiovisual works.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diaspora is a perfect example of such global networks. I named it "the desire of the erased to reconstruct their history and the global road".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from the late Chosŏn dynasty in 1860 to 1910, was a time of political turmoil, famine, and poverty, which led to emigration to the Primorsky Krai of Russia from the 1860s. This period saw the first wave of immigration to Manchuria, China, Hawaii i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he second period, from 1910 to 1945, was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which farmers and workers who had their land and means of production taken away emigrated to Manchuria or Japan.

The third period, from 1945 to 1962, was the period covering the Korean War and befo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immigration policy. During this time, most people who left Korea for the United States were biracial children, Korean women married to U.S. soldiers, and students studying abroad. This was also a product of the Cold War era. The fourth period, from 1962 to the

present, is the era when the immigration gates were opened, and there have been cases of group immigration for settlement purposes. In 1963, 103 Korean immigrants moved to Brazil to work in agriculture, which can be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ase.

However,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here were 1,033 immigrants who were forced into hard labor due to a Mexican immigration scam in 1905, leaving a painful history.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due to harsh labor on the Henequen farm in Mexico. As a supplement to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ree Korean novels that deal with the 1905 Mexican immigration as additional reading material. While 〈Black Flower〉 will be discussed in this lecture, the story also appears in the new fiction or “sin sosŏl” 〈Wŏlhagain〉, and Chu Yo-sŏp's (1902–1972) 〈To Catch a Cloud〉 also deals with this issue.

This is the collection in which Yi Hae-jo (1869–1927)'s 〈Wŏlhagain〉 is included. And the second novel, Chu Yo-sŏp's (1902–1972) 〈To Catch a Cloud〉 was written in 1935. 〈Black Flower〉 is a very recent work by Kim Yŏng-ha (1968–). These three works all deal with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who had to suffer through hardship after falling victim to the 1905 Mexican immigration scam. I titled this part as “The global road, the history of ideals and betrayal of the Korean diaspora.” Here, we see a photo showing the current number of Korean immigrants, or the Korean diaspora.

The global road is the term I use to describe the history of Korean diaspora. How many people have left the Korean Peninsula and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The number is around 8 million, which is a considerable number, equivalent to about 10%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lthough the population of Korea is not very lar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 is a significant Korean diaspora. The diaspora is characterized by forced migration.

Although it is now used as a general term for all immigrants, the original meaning was for people who left their hometown unwillingly. Therefore, 〈Pachinko〉 by Min Jin Lee is a novel that portrays the life of the Korean diaspora. This novel was adapted into an Apple+ drama and became popular worldwide. It sheds light on the liv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known as

Zainichi, over four generations from Korean American writer's perspective. Including <Pachinko>, Korean literature written by Koreans around the world is currently very active. Furthermore, in the field of literature, leaving home and embarking on a journey is often seen as a significant motif.

From the act of leaving home, unexpected encounters and conflicts, hardships and trials, to the happy or tragic ending, it all begins with leaving home. As seen in the current photo, while Korean immigration to China and the Middle East is decreasing, immigration to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However, in quantitative terms, Korean diaspora i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overwhelmingly dominant. This is not only because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but also because of Korea's deep relationship with the tumultuous history that it has gone through.

As revealed in the Mexican immigration scam, the hope for a new life through immigration sometimes ended in endless frustration and resignation. However, the immigration route of Mexican immigrants who participated in the Cuban Revolution is very interesting. The movie <Jerónimo> is a great example of this. <Jerónimo> is a documentary film released in 2019. It tells the story of how a second-generation Korean-Cuban became a key figure in the Cuban Revolution.

Jerónimo's father, Im Ch'ŏn-t'aek, as I mentioned earlier, was a victim of the Mexican immigration scam when he was only two years old. He suffered from harsh labor on the Henequen farm in Mexico with his single mother. After leaving Mexico in 1921 and immigrating to Cuba, he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s colonial era. Im Ch'ŏn-t'aek's son, Im Ŭn-jo (1926-2006), is Jerónimo, the protagonist of the documentary.

He meets Castro at university and gets involved in the Cuban Revolution. Director Chŏn Hu-sŏk, a Korean American filmmaker, portrays the two generations in his documentary film <Jerónimo>. The film <Jerónimo> was born when the director, who was on a trip to Cuba, coincidentally met Jerónimo's daughter. The unexpected connections of the diaspora demonstrate how they create new histories and cultures as global roads.

Let's view the trailer for this film briefly. Furthermore, there is a lecture on the topic of Partisan guerilla,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the anti-Japanese myth and guerrilla warfare in North Korea. In fact, North Korea was born based on this anti-Japanese guerilla spirit. Therefore, to understand North Korea, one cannot understand the process of its establishment and subsequent succession without understanding anti-Japanese guerillas or partisans. Thus, in the context of supplementing the ninth week lecture, I presented three pieces of material related to North Korea's anti-Japanese guerilla.

The recollections of anti-Japanese guerilla participants are emphasized as representative public memories and records, and the monument to revolutionary martyrs that commemorates the public achievements of anti-Japanese guerillas is a force that can enable the succession of the regime. Here, there are the graves of revolutionary fighters, which become the basis for justify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regime's succession through its preservation. Additionally, the group gymnastics "Arirang" is a collective dance rooted in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Thus, North Korea can be seen as being organized around anti-Japanese guerilla activity.

Finally, to conclude this lesson, let us consider Brecht's perspective on how we view history. In his poem "Questions From a Worker Who Reads," Brecht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In the books you will read the names of kings. Did the kings haul up the lumps of rock? Where, the evening that the Great Wall of China was finished, did the masons go? Caesar defeated the Gauls. Did he not even have a cook with him? If we accept history at face value without questioning it, life becomes easier,

but Brecht warns us against this in "Questions From a Worker Who Reads". A life without questioning leads to the normalization of injustice, inequality, and unfairness. The names and identities of the bricklayers who built the Great Wall of China are lost to history. Similarly, in the case of Napoleon's accomplishments, there were soldiers who contributed to his success, yet their names have been forgotten by history, even though he must have had a cook for him. However, the names of these people are not

recorded in history. “Questions From a Worker Who Reads” is precisely what reminds us that history should begin from this kind of questioning. It is my hope that this course could fulfill such a role.

讲义

1차시 역사소설, 역사인가 소설인가?

本课时我们将考察一下历史小说的体裁意义。本课时的主题是‘历史小说是历史还是小说’。

历史小说，历史和小说的某个地方。历史小说涉及历史和小说两个领域。如果开始追究历史的范畴到哪儿，小说的范畴到哪儿，那么争论就会没完没了。在此将从非常常识性水准进行接近。历史重视过去的事实，小说基本上是以虚构的想象力为基础的。历史小说需要回应这种双重要求。以过去的历史为基础的同时，通过虚构，更加逼真地讲述过去的故事。这种限制使历史小说经常处于边缘类型。但是反过来想，也可以积极评价说，这一制约成为了牵引历史小说的固有原动力。

因此，历史小说家为了避免这一争议，为了确保自身的领域，提出了40年到60年的时间段。即将相当于从现在开始两个世代前的这个时间段作为历史小说的舞台。如果说是两个世代前的话，虽然也有一定程度的过去记录，但也有空白的部分，具有折中的可能性。也就是说，虽然可以忠实地反映过去的历史，但可以用小说的想象力填补这一缝隙。

这一立场的前提是历史和虚构是不同的领域，各自追求的目标不同。虽然这种认知和规定在新的潮流中受到质疑，但历史小说是在这一制约下发展的体裁，这一点值得深思。

黑暗区域(Dark area)，黑暗领域。是历史小说的临界点吗？Fleishman의《The English Historical Novel》解释说，两个世代之间的距离是历史小说不同的最佳时间段。他认为正确、真实地传达过去是有限的。即使有过去的记录和资料，也不是全部都留下了。所以历史资料只能是部分性和碎片性的。这不仅是历史学家面临的困难，也是历史小说家面临的困难。

但他认为这也提供了挑战和机会。因为根据历史小说家如何填补和再现这一空白，其意义和指向也会有所不同。如果能够完美地了解所有过去，就不会产生探寻过去历史的动机和欲望。只有存在漏洞和未知领域，人们才能启动试图填补的知性好奇心和想象力。

Fleishman提及的历史想象力是强调历史记录的空白和填补其裂痕的虚构想象力的重要性的用语。所以说这是历史的想象力。为了生动、真实地传达过去特定事件，所谓想象力这一领域是必要的。但Fleishman表示，历史想象力应该受到一定的限制。像编织织物一样，用想象力弥补几乎没有记录的黑暗区域，是存在局限的。

他认为, 自由改变和改编过去历史的虚构想象力应该有一定的限度, 超越限度就是越权行为. 这句话说的不是小说的想象力, 而是所谓历史想象力这一表述本身已经包含了这种意思.

Gyorgy Lukacs(1885-1971)作为现代的前史的历史小说. 我把Lukacs的照片一并展示在幻灯片上了. 在谈到历史小说时, 不能遗漏掉Gyorgy Lukacs. 他是匈牙利的文艺思想家, 也是代表性的马克思主义者. 1918年, 在俄罗斯革命的影响下, 他加入了匈牙利共产党, 还担任了匈牙利革命政府的文教部长官. 当然, 这一革命政府是短命的.

他的代表作历史小说是1937年撰写的. 在这个领域的研究较少的时代, 他对历史小说进行了最初的理论性尝试, 这一点也具有非常深远的意义. 正如他所主张的最初的理论性尝试一样, 历史小说是理论和实际相结合展开的, 幻灯片中展示的引文是借用Walter Scott(1771-1832)的见解所说的. 这里的核心是, 为了引起同时代的人们的关注而选择的对象必须翻译成我们现在生活的时代的语言或风俗. 用历史小说的用语来说, 可以说这是时代错误. 必然会发生与时代背道而驰的事情.

但Lukacs在这一陈述中补充了一段话. 他说, 虽然如此, 但这种自由确实应该具有局限性. 说的是现在的前史, 即作为之前我们可以体验的历史, 应该体验, 所以不得不翻译成我们时代的语言和风俗, 但不能不协调. 也就是说要具备协调性. 所以这是Lukacs的作为现代前史的历史小说的真正意义. 就是不能太夸张. Lukacs警告说, 不能用我们时代的语言无条件地改变过去事实或随意改编. 那么来看一下Lukacs赞扬的、历史小说的先驱者. 我们来看看Walter Scott的《Ivanhoe》的一部分.

Walter Scott被评价为奠定近代历史小说形式的人物. 并且最积极评价的人是Lukacs. 他通过Walter Scott的作品展开了自身的历史小说论, 因此为了理解Lukacs的历史小说论, 必须要了解Walter Scott.

幻灯片的提示文在这堂课的第5周中, 而且讨论了民众英雄、义贼. 不仅是国王和贵族的上层阶级, Scott还使口传中的人物罗宾汉(Robin hood)登场. 当然罗宾汉不是主人公, 但通过罗宾汉可以再现代民众的生活和文化. Lukacs指出, 在构成民众生活的总体性方面, 上层与下层的相互作用是必不可少的.

不能只根据下层的生活状态, 或者上层的喜好来总体性描绘历史. 所以使罗宾汉这一口传中的人物登场, 主人公Ivanhoe也是虚构的人物. 不是历史人物, 不是事实性人物. 他也不是可以改变历史潮流的英雄. 而且, 也无法将其视为优秀的人物, 尽管如此, 让Ivanhoe登场是为了将其作为展现理查德一世和当时贵族阶层动向的媒介人物, 所以使这一虚构人物登场.

Lukacs所说的中立人物就是这个人物. 引文中虽然理查德王的内心没有留在记录中, 但虚

构的想象力介入了，借此获得了生动的具体性。因此，从这个层面来看，中立人物在Lukacs的历史小说中非常重要，另外，试图以体现历史人物的内心世界的方式，获得当时的整体性，这就是Lukacs历史小说论的核心。

历史也是文本的一种。这是新历史主义的登场和解体性的理解。完全划分历史和文学的界限，文学填补历史没有探讨、历史上没有记录的漏洞的传统历史主义，在20世纪后期受到了新历史主义和后现代主义的批判。因为是以新历史主义为例进行说明的例句，所以在幻灯片上写得很长。以Greenblatt(1943-)这个人物为例。

Greenblatt说：“历史和文学不是完全相同地反映过去，而是构成，不是挖掘，而是创造、创案、塑造。”历史的复原，将历史原封不动地复原到过去的历史上，新历史主义者并不喜欢复原这个词。因为这句话的前提是过去历史是不变的，现在可以完全恢复。新历史主义认为，已经存在的记录、碎片化的记录或遗物也是特定时代和状况的产物。主张反映了那个时代的社会政治观点和理解。

例如，王朝的记录，即所谓的王的记录是胜利者的，不能摆脱代表既得权阶层的政治性。除此之外的集团和人物不会留在记录中，或者会被周边化。也就是说，民众的生活很难被记录在王朝或胜者的记录中。对历史的边缘和少数群体的记录势必会相对较少、不足。

因此，我们仅凭实证主义的考证或历史记录来构成他们的历史是有限的。新历史主义者认为有必要积极发挥想象和解释的主张也对关于历史小说的认知产生了影响。一言以蔽之，可以提出‘历史小说果真摆脱了胜利者的历史吗？’的疑问。

大家能看到右边的小孩吗？这个戴帽子的孩子是一个GI Baby，名叫John。GI是代表美军士兵的Government Issue，是美军物品、补给物品的意思，是美军士兵的统称。John是美军士兵的父亲与从事性工作的母亲，也就是以美军士兵为对象的从事性工作的母亲之间生下的孩子。但很早就被抛弃了，在孤儿院生活。

一位名叫金永龙(音译)的高中生注意到这个混血孤儿，“如果把混血孤儿带来朝鲜的话，可以让你升入上级学校，也可以让你去莫斯科学，还可以给你稳定的工作。”他听信了间谍的话，带着小孩一直走到有停战线铁栅栏的地方。当然是在那里被军人逮捕了。没能越过停战线。

该事件因贫困高中生和美国军人与韩国卖淫女性之间生下的混血儿童试图越北，成为重大话题。当时成为问题的该事件之后消失了，被遗忘了。授课者还将此事件与当代脉络进行交叉，撰写过论文。朝鲜宣传的孤儿救助谈话，在韩国的混血孤儿或孤儿们生活太困难了，如果把这些孩子带到朝鲜，我们会抚养和养育。1958年发表了这样的谈话。

贫穷而且非常想学习、对学业有梦想的基层居民、像金永龙等高中生响应了这一谈话，试图越北的事件。在这一事件的延长中，被称为在日朝鲜人、ざいにち也忍受不了在日本的歧视和侮辱，从1959年12月到1961年，有7万4000多人踏上了朝鲜的土地。这被称为朝鲜巨大的Exodus。在朝鲜的Exodus中，试图越北也曾在韩国发生。

因此，如果与此脉络相互交叉，进行深入描写的话，那么这一张照片将具有新的意义。韩国的美军基地和冷战的结构、基地村卖淫女性和混血孤儿、越南人的贫穷和疏远、对混血儿童放任不管、领养、以及儿童福利。正是这种制度性起源，所谓从此开始的复合意义、要素交织在一起，创造了新的意义。所谓没有留下记录的边缘历史，只有经过层层叠加解释的过程，才能被叙述。

真实性其实只是效果的产物，一起来看一下所谓‘所有的真实性都会被重构’的左边的格言和右边的两张照片。如果说事实是不稳定的，而且筛选和加工一定要紧随其后的话，那么所谓事实应该被视为事实效果。在新历史主义者的主张之后，有人提出了这种观点。所谓事实效果，就是所谓事实，不是某种固定的实体，而是不断被计算和重构的谈论的效果。即使看到相同的拍摄对象，根据构成和演绎方式的不同，同样的场面也会产生不同的效果。

右图是1937年轰炸上海的照片。从上面的照片来看，孩子一个人在被破坏的车站哭泣。这样看的话，非常戏剧性地展现了因空中轰炸而被破坏的上海的景象。在下面的照片中，那个孩子旁边分明有大人。为了强调现场的悲惨，故意对孩子进行焦点化，删掉了剩余的人们，这是日后出现该照片造假主张的依据。

因此，甚至出现了这张照片是被演绎出来的，是虚假的主张。日本的历史修正主义者以这张照片为依据，提出了没有证据表明日本在中日战争时期大量屠杀过中国人，以及这张照片造假的可能性。虽然从报道伦理的角度来看，这张照片的演绎可以被视为问题，但孩子实际上因轰炸而受伤躺着的照片，因为历史修正主义者巧妙地没有展示，因此历史修正主义者也有一种歪曲历史的方面。大家在这张幻灯片中可以了解。

与真实性危机相竞争的历史解释。可以说没有单数历史。如果继续解释的话，在这张照片中，孩子伤势严重。而且从孩子的照片中可以看出，上海轰炸是以无辜市民为对象进行的，因此相当于日本军的战争犯罪。虽然说是精密轰炸，但我认为在这一层面上，韩国战争时美军对朝鲜地区的无差别轰炸也是战争犯罪。

我们在空中看到的原子弹会引发敬意和战栗，但在地面上，炸弹是恐惧和灾难。战争是破坏所有人类正常生活的、人类制造的重大灾难，也是犯罪效果的理由正在于此。其实关于效果有几点，与此相关，参考文献中展示的我们的历史小说需要理论和争论，希望大家多找来读一

下. 这是我需要另外说明的部分, 所以这个部分在此略过.

如果以这种方式, 从事实效果的角度重新定义历史小说的话, 那么这样的图表是可能的. 历史小说的四种分类, 从记录性的到幻想性的. 所以这里可以看到最右边是历史叙事. 然后左边是幻想. 脱离协议的真实性的, 走向幻想领域, 授课者这样讲历史小说划分为4种类型. 这是从事实效果层面, 将韩国历史小说分为4种类型的图表. 说的不是历史, 而是历史叙事. 这反映了历史也要像叙事一样构成, 才能引起读者的理解和共鸣.

因此, 越是接近历史叙事, 人们就越觉得具有记录性. 所以人们会感觉, 原封不动地把没有经过加工和改编的原材料展现了出来. 相反, 越是超越我已知的常识和信息, 加入虚构的想象力, 就越是觉得历史小说梦幻. 所以代替历史就是这样的, 这个部分以后会涉及. 与SF也形成了接触点. SF以时光机等发达的科学技术为基础, 追溯过去的时代, 使现在、过去、未来相互交叉.

从这个角度来看, 2000年代的历史电视剧出现了所谓‘Faction’的说法. 这完全是韩国式的造词. Faction是Fact和Fiction的组合同. Faction是指不受历史记录制约的东西. 得益于这一潮流, 韩国电视剧得以主导韩流.

举个例子. 就是《太王四神记》. 是引领韩式造词-Faction的流行的电视剧. 还有《王的男人》, 以丰富的想象力描绘了民间艺人的戏台. 在《王的男人》小说中也很好地展现了Faction的潮流. 是两名身着红衣的男性艺人. 民间艺人属于朝鲜时代身份制中最下层的贱民. 是一部讲述民间艺人和王之间彼此共鸣、交感的作品, 深受电影观众的喜爱. 因为大家可以在Netflix上确认这部作品, 所以希望大家一边观看民间艺人与王之间的、男性之间的爱恋的同时, 一边确认这部电影是如何作为Faction获得成功的.

2차시 한국 역사소설의 네 분기점과 독법, 인물과 시점

本课时的主题是韩国历史小说的四个分歧点和读法。也就是说，所有历史在事实效果的层面，从构成一切的这一点来看的话，历史小说即便是同样的历史事件，但根据如何构成人物和所瞄准的时间的不同而有所不同，本课时将对此进行考察。韩国历史小说的四个分歧点可以这样分为四个时期。

1900年是因日本殖民化的威胁，主权危机达到高潮的时期。1905年被日本剥夺了外交权。1910年韩日合并。在这种主权丧失的危机中，召唤过去的英雄。以1900年代为基准，反映了从遥远的过去到非常近的过去试图克服危机的意图，因此超人的面貌非常突出的人物备受青睐。例如乙支文德、李舜臣等韩国代表性的英雄就是如此。除此之外，还积极介绍了外国英雄。像圣女贞德一样的人物就是这样。可以说他们是克服和解决韩国所处的国难所必需的人物。

此后，1930年代开启了历史小说的全盛期。与对朝鲜的传统和遗产的关注相吻合，迎来了历史小说的复兴期。李光洙(1892~1950)或洪命熹(1888~1968)、金东仁(1900~1951)、李泰俊(1904~?)等历史小说家登场了。而且这些人物在以后的课堂上也会继续出现。

随着1970~1980年代民众论的兴起，强调被称为民众的集团主体。这时，创作了以多样化的民众为主角的历史小说。2000年代在新历史主义的潮流中，由于经济崩溃和丧失，历史的个别化变得明显。事实上，历史人物也以更加突出‘曾经是一个人’的内心痛苦和矛盾的方式进行刻画。这样可以粗略地整理一下历史小说的潮流。

1900年代发生了主权危机和爱国启蒙的热潮。1900年代，封建的朝鲜王朝没落，被强制转换为近代秩序。以近代国家为中心的世界体制被认为是规范的秩序。近代国家与既存的以中国为中心的中华主义秩序不同，强调国家本身应该自立的主权国家的成立。相反，如果建立主权国家失败的话，也有可能沦为殖民地的帝国主义时代。建立主权国家成为迫在眉睫的课题的1900年代，围绕韩半岛的帝国列强们的实际性威胁进一步加剧了这种危机感。这种危机感支配了当时的公论场。文学也只能处于这一潮流中。所以所谓‘想要创造新文化’的这个例句指明的正是这一点。很好地展现这个时代面貌的一部分就是历史传记物。利用‘传’等传统体裁，展现民族英雄或克服国难的历史事例，强调自主独立和爱国心。在近代文学形式尚未确立之前，强烈蕴含时代性的该历史传记物为以后发展成为历史小说奠定了基础。以当时创作的各种历史传记为例。来考察的话，内容如下。

以韩国英雄李舜臣为题材的报纸连载历史作品居首位。然后下面可以看到其他历史传记。

韩国的代表性英雄的《李舜臣传》自然如此，下面是叙述外国英雄和伟人的书籍的封面。有着所谓‘政治小说’的头衔的《瑞士建国志》是大家熟知的英雄William Tell的故事。被称为12世纪的瑞士国，大家可能不知道瑞士国是哪个国家，瑞士国是瑞士的旧韩国式表述。12世纪的瑞士被邻国日耳曼，即现在的德国占领，饱受痛苦。当时上天诞生了英雄William Tell，拯救了陷入危机的祖国。这个故事改编成中文后，命名为政治小说进行出售。翻案这个词很难吧。所谓翻案小说是指把外国作品中的内容和情节原封不动地拿来，将风俗、地区名称、人名等根据自己的国家进行修改后翻译的小说。

如果可以这样考察1900年代的话，一起来考察一下1930~40年代初法西斯主义的发源和历史小说的全盛期。1930年代历史小说非常流行，知识分子看待这种流行心情如此复杂。并不简单。申南徽(1903-?)是一位著名的社会主义思想家。在他眼里，复古主义不仅是韩国的现象，也是全世界的现象。这也是与以前性质不同的新形态。“现代的浪漫复古思想是个人的，主观的，甚至是法西斯性的。”申南徽严厉地批评道。因为当时的李光洙、金东仁、朴钟和、尹白南等人发表了多篇历史小说话题作品。

在进行本讲座时，请各位留意一下1930~40年代，谢谢大家。本课时只能讲述1930~40年代的历史小说。因为在韩国这个时期真的是历史小说的全盛期。虽然社会主义者认为历史小说的热潮与法西斯主义的古典热潮一脉相承，但也有批评认为，因为1930~40年代日本殖民统治达到顶峰，因此必须考虑不能如实体现代现实的环境。

通过历史小说迂回地揭露和批判当时暴力现实的历史意识产物，可以说引领了当时历史小说的全盛期。所以一方面是法西斯主义的复古流行，另一方面是在这个时代的暴力性下，通过所谓历史的迂回路线批判当时的时代现实的双重见解彼此吻合，这两种指责都真实地展现这个时代面貌。

刚刚说过1970~80年代是民众论的崛起和历史小说的再全盛期。在1970~80年代，在韩国的历史上也是非常值得关注的时期。因为这是民众论占主导地位的时期。当时韩国正饱受军部独裁的折磨。因此，对抗这些势力的挑战性举动也很明显。正式产业化的同时，劳动者阶层的成长也主导了这一趋势。其中，民众的概念、范畴、性格、领导能力等成为问题。以及到底有没有民众。民众的真实身份是什么，这样的争议也过热化。到哪里可以看作民众，那么我们批判性的知识分子。被称为‘小资产阶级’的小市民知识阶层是否包括在民众当中也是个问题。尽管存在这样的争议，但作为对抗概念和运动的民众论还是抓住了这个时代。通过幻灯片展示的例文可知，以此为基础，不仅是文学等艺术领域，学术、社会、历史领域也成了民众论的话题。不是个人的专有物，而是代表全体民众的民众论的对抗霸权的性格对历史小说也产生了影响。上课时看到的《长吉山》、《太白山脉》等也是这个时代的产物。

虽然基于民众集团主题的变革可能性，在2000年代以后受到了‘是不是无视世代、性别、阶层差异，只强迫了被称为民众的集体主体’的批判，但我想补充的是，即使如此，与暴力政权对抗的民众对抗的性格作为这个时代的产物，也具有意义。

来看一下2000年代新历史主义和历史素材的多元化。2000年代的电影中刮起了历史剧的风潮。例文中所说的历史剧是指以历史为素材的戏剧电影。当时出现了所谓Faction的韩式造词。事实fact和虚构fiction的韩国造词。历史小说基本上是以事实和虚构的紧张关系为动力诞生的体裁，但在电影中，创造了‘Faction’一词，以历史为素材，尽情发挥导演和作家的想象力，可以说是历史剧。电视剧也拍摄了很多可以称之为‘Faction’的作品。那么，不亚于这种电影和电视剧中的历史剧热潮，在出版市场上大众性的历史书也非常受欢迎。大众性历史书有多受欢迎呢，比起小说，大众性历史书更畅销的时候就是这个时候。像《达芬奇密码》，还有《刀之歌》，《黄真伊》等作品在这个潮流中非常流行。大众如同读小说一样，阅读以过去历史为素材的大众性的历史小说。

这里可以看到《在首尔允许Dance Hall》。从日常的文化风景和故事历史来看，有《切·格瓦拉评传》、《在首尔允许Dance Hall》、《钻石项链事件和玛丽·安托瓦内特神话》等。可以说是展现故事历史的典型的历史书。

切·格瓦拉著名的社会主义革命家，相信大家应该非常了解。韩国虽然还是冷战思维很强的国家，但《切·格瓦拉评传》还是很受欢迎。《在首尔允许Dance Hall》也很有意思。还有《钻石项链事件和玛丽·安托瓦内特的神话》也很有趣。如果大家也感兴趣的话，可以读一下这些大众化的故事。历史小说和历史书之间的距离缩小，界限逐渐模糊的新历史主义的转换样相，通过这部历史书也可以知道。

我说过这是与历史人物的固有名词、事前信息竞争的力场。这里是为了告诉大家，根据历史小说的不同构成，对历史的同一个人物和事件也会完全不同地进行接受。这是李光洙的《端宗哀史》，今后大家会再次看到的。

在1930年作为单行本出版的该小说中，首阳大君后来废除了作为国王的年幼的侄子，登上了王位。这个人就是世祖。关于世祖，对历史感兴趣的读者已经有事前知识了。在废黜年幼的侄子、赐予毒药的第一手情报中，以此为基础，可能会消极地将其视为无情的掌权者。因为年幼的国王统治国家，国家太混乱了，所以不得不做出这样的选择，也有对此深有同感的视线。像这样首阳大君，即关于世祖的事前知识和信息当然存在于历史人物中。历史小说家应该以此为基础再现历史人物。虽然可以最大限度地排除感情和评价，但如果这样的话，小说就会失去戏剧性的紧张感。这样一来，就和历史书没什么不同了。那么李光洙的《端宗哀史》是如何处理这个事件的呢？《端宗哀史》站在了年幼的侄子端宗一边。自然而然地，将端宗推向死亡的

世祖，被描绘成了消极人物。首阳14岁睡在别人家有夫之妇的房间里，被其丈夫发现后用脚踢倒后墙，逃跑10里路，被刻画成问题少年。那么，可以说这个接近施暴犯的危险人物就是世祖。因为在这种视角下描绘了世祖，所以李光洙对与事前信息竞争的力场中被称为‘死六臣’的人物也持有非常同情的态度。我们称之为‘死六臣’的人物是指试图使被世祖废黜的幼王-端宗复位，而被世祖杀害的6名臣子。严刑拷打，还有进行过怀柔。也就是说，如果认可我，成为我的臣子，会重新给予你们官职。从漫画中可以看出，死六臣断然地喊着NO。在这幅表现死六臣的漫画中，世祖指责喊着NO的大臣们是现在拿着工资却谋反的背叛者，而面临死亡的死六臣却否定说，没有收过一分钱。因为没有向世祖宣誓效忠，他们最终成为了死六臣，所以李光洙非常积极、同情地进行了描述。百姓们的反应同样被描写得对他们非常同情。但我们能通过历史记录看到这些吗？没有留下这一记录。有的百姓可能会指责死六臣，有的百姓可能会觉得他们很可怜。过去没有记录百姓的反应。因为作者重点再现了同情和惋惜死六臣的人们的反应，所以可以说是以同情死六臣的视线构思这部小说。在与历史人物的事前信息展开竞争的力场中，李光洙是这样写的，

但其他小说都是这样写的吗？并非如此。《首阳大君》这部小说是金东仁写的。这部小说中对首阳大君给予了肯定的评价。说首阳大君不得不这样做是有理由的，是这样写的。这些部分在以后的课堂上也会重新讨论，所以暂且跳过。

从再现的视角来看，有全景视角、被称为鸟瞰(Bird's eyes)的视角，在这里再看一下后面的内容。再现的视角可以大致分为全景视角和显微镜视角，即fly's eye两种。再现的时间，也就是根据作者从什么时间点看待，小说可能会有所不同，可以说这是小说的构成技法。再现的时间，全景式的鸟瞰指的是从巨大的上空看待的时间。正是刘贤钟(1939-)的作品《野火》。发表于1976年。

正如我前面所说，70~80年代是民众论的时代。因为到目前为止，强调了对被统治阶层压迫的民众的新关心和变革的前景。《野火》也属于这种潮流。该事件，该小说中提出的历史时间段，讲述了东学农民战争或甲午农民战争的时代。当时民众揭竿而起。林如三作为民众起义的代表登场了。所以这部小说从具有民众典型性的全景性、鸟瞰的观点出发，得出了如野火一样，民众现在虽然失败了，但会重新站起来的结论。相反，显微镜视角虽然描绘了同样的东学农民革命的时代，但在这里却描写了人物内心化的心理。而且主人公不是展现了农民的典型，而是作为批判性的知识分子登场了。

这种Fly's eye可以看作是昆虫的视角。从昆虫的角度来看，被扔在巨大历史舞台上的个人欲望和动机都会有所不同。作为批判性知识分子的我，作为反抗父亲的两班阶层登场，两班阶级的人物背叛两班阶级，站在农民一边的原因。其动机并不是站在农民的立场上变革世界，而是反抗父亲，讨厌将我封闭其中的状况，从这一点来看，我进行反抗，对被称为全奉浚的东

学军农民领导人举起反旗，最终成为了被他们杀死的悲剧人物。所以才出现人们扭曲的欲望和背叛。

从这个层面来看，根据视角的差异，同一时期、同一人物可能会被描述得不同，希望大家能够理解。

3차시 강좌 가이드 ①,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本讲座以‘韩国历史小说的过去和现在’为整体主题。历史小说以过去的历史为首要对象, 因此不能不关心时代环境或变化。不仅是作为小说背景的去历史, 还有作家从事写作的当代时代景象。另外, 大家现在听我讲课时的现在的历史, 也必须将这些十分重要地考虑在内。

韩国历史小说以1900年代为起点一直延续至今。在这个过程中有很多历史小说。虽然也有很多我没有介绍到的历史小说, 但是考虑到授课者的力量和重要性, 这样构成了1-5周的课程。

李舜臣将军经常与世宗大王争夺第一、二位最受尊敬的历史人物。直到现在, 他的人气依然不减。之所以如此受欢迎, 是因为李舜臣将军相关的再现内容物的持续生产, 获得了坚实的后盾。虽然历史小说打开了大门, 但影像媒体也起到了重要作用。2014年、2022年、2023年依次上映的李舜臣三部曲电影具有代表性, 并将对此进行讨论。李舜臣将军在危机时代具有号召力。不仅没有战争的火力, 也没有朝廷的支援。但面对有备而来的倭寇, 即使再优秀的名将, 也很难取得胜利。因为李舜臣将军是完成这一艰巨任务的人物, 所以在韩国他被尊为伟大的人物。对李舜臣感兴趣的人, 请通过本讲座先了解一下李舜臣。还有希望大家了解一下他作为国家英雄被纪念的过程和背景。

如果了解东亚的国际战一壬辰倭乱具有怎样的时代背景的话, 那么从单一国家视角看不清楚的东西, 可以与东亚的局势变化联系起来, 重新了解壬辰倭乱所具有的意义。所以照片拍摄的是设立在光化门地下的地下展览馆的样子。关于东亚三国当代背景的说明在这个展馆里有些不足, 所以听完本讲座后参观展馆的话, 应该可以得到更多样的体验和观点。这里是寻找李舜臣相关遗迹的战争纪念馆。这是设置在战争纪念馆的龟船模型。

每个国家都有战争纪念馆。从某种角度来看, 战争纪念馆也是鲜明体现国家认同感的空间。首尔市内有个叫三角地的地方。那附近有大规模的战争纪念馆。那么战争纪念馆为什么展出李舜臣将军的龟船呢? 因为李舜臣的壬辰倭乱也是一场战争。因为在李舜臣的功绩上, 龟船是除此之外无法解释的一种战争武器。但龟船的实物没有留下。通过想象力和推论填补了这个空缺。龟船是李舜臣将军取胜的核心秘密武器, 龟船起到了很大的作用, 在闲山海战中取得了巨大胜利, 李舜臣因为名叫元均(1540~1597)的人物深受牢狱之灾, 在此期间龟船全部被毁, 此后龟船的存在变得模糊, 没有留下来。所以龟船的模型其实是在之后人们认为应该是这样的情况下制作的。所以, 在龟船的真相和之后美化中, 希望批判性地反省战争与和平的意

义。当时到了1920年，龟船离开铁甲船，甚至出现了‘是潜水艇’的说法。当时将龟船看作潜水艇是不合理的，而且过于夸大了龟船的神话。

因此，我们应该如何看待龟船的真相和美化中的战争与和平的意义？战争纪念馆是不是过于煽动战争？那么战争带来的破坏和当代民众生活的凄惨不亚于战争胜利的记忆。为了通过这些实现和平，我们应该做出怎样的努力，希望能同时进行反映这种时代精神的展示，所以还带来了战争纪念馆的龟船模型。

《闲山，龙的出现》中的沐海船(ぼくかいせん)是与想象中的守护动物相似的形象。因为壬辰倭乱最终在海战中败于李舜臣，所以日本人把壬辰倭乱当作失败的记忆。之后会如何再现呢？关于龟船的记录出乎意料地少，我说过没有留下实物，但保留了被称为ぼくかいせんの记录。或者也被称为盲船。ぼくかいせんの曾出现在2022年上映的韩国电影《闲山龙》中，电影中的日本士兵称之为ぼくかいせんの，因此更加被大众所熟知。ぼくかいせん指的是沐海船，这里没有特别的意思。据说可以使人联想到右边照片中想象中动物-鯨(しゃちほこ)。背部有尖锐的突起，是神奇且具有威胁性的动物。

在右边的照片中，位于日本名古屋的ぼくかいせんの顶部两侧由鯨守护着。所以大家去日本旅行的时候，如果去名古屋的话，仔细观察一下顶部的话，就可以发现原来是鯨，通过鯨这一动物，可以将ぼくかいせん理解为龟船。左图为片野次雄立足于实证，描述李舜臣和丰臣秀吉的书籍封面。题目是‘李舜臣与秀吉’，副标题是‘文禄·庆长海战’。当时日本将壬辰倭乱称为文禄·庆长的海战，所以这样写着。日本人所想象的龟船的样子有点有趣。应该说眼神很凶狠吗？所以有趣的是，龟船没有实物，可以被多样化地想象，在日本被想象成那样，在韩国被想象成这样。

所谓传统不可能没有持续性和现在性。李舜臣是满足这一要求的代表性象征和典范。但我们如何将所谓李舜臣的这一资产更为广泛、更具活力、反映时代变化的同时，更加多样地进行恢复，这应该是现在留给我们的某种义务和责任，会成为我们的课题。

世宗大王光化门的地下展览馆和韩文的再创造。世宗大王是韩国人最爱的历史人物。至今为止他创造的韩语文字-韩文是如何被创造的？突然创造了韩文？就这样，创制过程没有被公开，仍然是个谜。如照片所示，展现韩文造型之美的展览位于光化门世宗大王铜像下面的地下展览馆。在地下展厅可以看到像这样正在以韩文为素材开发的多样化原创设计。将韩文用于衣服图案的设计，生活工具中也应用了韩文。在全球大流行的情况下，墨西哥制作了使用韩文的口罩，分发给当地弱势群体。

世宗大王手里拿着韩文书露出灿烂的笑容的画作，据说这幅画实际是墨西哥人创作的作品。所以大家听完‘世宗大王和他的时代’的讲座后，将会了解世宗大王不仅创造了韩国的文字-韩

文, 还创造了多种多样的业绩. 可以确认世宗大王是精通人文科学和自然科学的领导人. 但我们纪念世宗大王是因为韩文. 韩文的使用范围非常重要. 因为, 无论世宗大王如何创造韩文, 如果这些韩文最终不被使用的话, 那么就意味着传统的韩文最终会被埋没, 使用过这种韩文的人, 以及继承、发展韩文的人, 正是女性, 这一点非常重要. 如果大家确认一下在世宗大王的相关讲座中女性的活跃程度, 可以会以新的视角来参观展览馆.

创制韩文的谜团, 以集贤殿为中心舞台. 韩文的创制非常神秘, 某天颁布说是世宗大王创造的. 因此, 创制韩文的谜团成为了作家们非常感兴趣的对象. 所谓的黑暗区域, 就是以合理的想象力挖掘没有留下记录的黑暗区域的小说, 正是大家在左边所看到的《树大根深》. 虽然《树大根深》受到了《达芬奇密码》的影响, 但据说是从翁贝托·艾柯的《玫瑰之名》中获得了灵感. 亚里士多德的《诗学》中只有悲剧论. 《玫瑰之名》在《诗学》中存在喜剧论的假设下展开了故事. 虽然发生了杀人事件发生, 使用了解决事件的谜团和推理叙事, 但该小说的核心主题不是杀人事件本身, 而是描述了垄断和禁止试图了解喜剧的既成权威, 以及因为被禁止而试图了解的人类普遍的知性好奇心和欲望之间的冲突. 从广义上来看, 这也是我们如何看待所谓文字的问题.

《玫瑰之名》以修道院这个封闭、孤立的空间为中心. 《树大根深》是以诞生了文字, 探索文字世界的集贤殿为中心. 集贤殿是想要保守创制韩文的秘密的守护者和试图揭开创制韩文的秘密、最终破坏韩文的妨碍者之间, 展开殊死搏斗的场所. 因此, 修道院和集贤殿也可以看作是体现空间如何规定人类意识的历史实例.

现在景福宫是韩国非常有名的旅游胜地. 景福宫有一座名为修政殿的建筑. 现在没有集贤殿. 听说修政殿曾是集贤殿旧址, 所以大家听完讲座后探访景福宫, 确认一下修政殿建筑, 修政殿建筑是《树大根深》这部小说诞生的背景, 去确认一下集贤殿旧址的话, 应该会成为更加丰富的经验. ‘复原的名妓黄真伊之墓. 因为是朝鲜领土, 所以不能自由往返’, 我渐渐写下了缩略号.

朝鲜时代的妓生是贱民身份. 所谓贱民, 就是指卑贱的百姓, 相当于是最低微的身份. 朝鲜时代的妓生大部分是从属于官厅的官妓. 她们被叫到宫中宴会上或男性两班们的游乐活动中, 通过歌舞、乐器演奏等风流韵事为出席者助兴. 本讲座还将讲述义妓的故事. 1908年发布的妓生管制令, 从官妓的身份重新诞生为近代妓生. 虽然从身份制约中解放了出来, 但通过妓生管制令, 日本殖民当局将许可制义务化. 所以一定要加入妓女组合, 得到警视厅的许可, 并定期接受妓女们非常讨厌的性病检查. 但不管怎样, 妓生随着近代的诞生, 具有了被称为自由契约者的商品劳动形态, 这种历史性变化过程, 也希望大家可以在观看讲座时确认.

其中还出现了走在时代最尖端的新女性妓生. 新女性妓生被称为短发女郎, 以短发小姐的

崭新形象登场，可以成为女演员，也可以成为歌手。可以在讲座中进行确认。而且这里重要的是名妓。代表性的名妓是韩国人尽皆知的黄真伊。朝鲜在2011年复原了黄真伊的墓地，我在此展示了照片。墓碑上是写着‘明月黄真伊之墓’。但本来从记录上看，黄真伊要求把自己埋在路边，这个墓地是否在路边，我也没去过，所以不知道。

洪锡中的历史小说《黄真伊》是朝鲜的历史小说。在色情插图和黄真伊交叉产生的想法是，我也想快点去朝鲜看看黄真伊之墓是如何复原的。‘妓生也参加了3.1运动，寻访首次响起独立宣言和万岁声的塔谷公园’。1919年的3.1运动是大家学习韩国历史中必须要知道的历史。因为全民族的示威，反对日帝的武端统治而发生的全民起义。而且妓女也参与其中。寻找这些痕迹，在水原复原了京畿道33名正义的妓生。在3.1运动中，33名民族代表朗读了独立宣言，高呼万岁后被日本警察抓走，因此，33这个数字具有历史象征性。所以这里复原的妓生也是33人，符合历史象征意义。是在去医院接受所谓卫生检查的性病检查的路上。殖民当局进行了性病检查，妓女们认为这是一件非常耻辱的事情。

在这种平时的愤慨和3.1运动的热潮中，33名妓生面对眼前的日本警察高呼万岁。发掘并复原的33人名单，大家可以在左侧看到。另外，青年学生们在塔谷公园，当时被称为Pagoda公园。朗读了独立宣言，在这里第一次喊了万岁。在照片中看到的塔谷公园的拥有8个屋角的八角亭，3.1运动的万岁示威首次被点燃，位于首尔钟路的塔谷公园具有这样的历史性。大家一定要去钟路的塔谷公园找找八角亭在哪里，想象着与曾经在这里的无数青年学生一起朗读3.1运动的独立宣言，高呼万岁。他们高喊着万岁，移动到了现在的大汉门。现在正在进行修复工程。当时大汉门充满了人们的万岁声。我认为，沿着首尔市内回顾3.1运动的意义也很有意义。当时把具有时代精神的妓生称为思想妓生，我认为33名正义的妓生也具有思想妓生的面貌。

‘大盗和义贼之间，林巨正的民众传说和痕迹’。无论东方或西方都存在义贼。而且问题是，如果他们平安无事，就是不会成为盗贼的平凡民众。将他们推向盗贼的上层腐败、虐政、贪欲，是义贼即将出现的背景。但义贼也没有必要一定要给百姓分发粮食和财产。因为，只要训斥和惩罚上层残暴的人物，被他们折磨的民众就会欢呼义贼。通过他们投射出自己平时的不满和反感，并感到满意。正如刚才所说，英语把‘义贼’定义为像罗宾汉一样的人物。罗宾汉在成为一个特殊的个人之前，在西欧算是正义的盗贼的代名词。在朝鲜，大义贼就是林巨正。虽然朝鲜王朝史的记录中只保留了无法快速抓住林巨正而出大事的统治层的视角，但重要的是民众并不这么认为。

右边是位于江原道汉滩江的孤石亭，实际上林巨正没有来过这里，据说是他们打败了官军，变成了少鳞鳅，至今还在守护着自己。是拥有这一传说的遗迹。所以与历史记录无关，孤石亭是蕴含着民众的挫折和希望的遗址。

各位如果去江原道的话，可以去一下孤石亭，想一下林巨正没有来过这里，但民众却在这里融入了一个神话传说。这里是对贱民进行说明的部分。在以后的授课过程中，可以这样思考在身份制中出现了怎样的历史人物。

4차시 강좌 가이드 ②, 역사소설과 유적지의 연계

본课时扮演的也是该系列讲座的指南的角色。与此相关，我会以展示希望追加阅读的资料来介绍这个讲座。

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记忆遗产的最早医书《东医宝鉴》和韩医学博物馆。这是许浚(1539-1615)的《东医宝鉴》。《东医宝鉴》作为韩国的古典医学书籍，至今仍被作为韩医学的重要资料加以参考。《东医宝鉴》2009年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记录文化遗产名录，再次确认了其地位。在韩医学界，《东医宝鉴》是重要的医学书籍，但在其成为大众常识的过程中，李恩成的小说《东医宝鉴》起到了很大的作用。

1990年在杂志上连载的小说《东医宝鉴》出版了。这本书销量超过400万册，人气非常高，彻底改变了普通人对《东医宝鉴》的认识。以这本书为基础拍摄的电视剧《许浚》成为大韩民国历代历史剧收视率第一名。在所有题材的电视剧中排在第4位。确实人气很高。即使再好的遗产，只有进行继承和发展，才能使其焕发光芒，因此被选为非常好的例子。

但《东医宝鉴》之所以能够成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文化遗产，是因为预防医学和公共医疗的精神。如果说对现在的我们而言，《东医宝鉴》有意义的话，自新自由主义扩散以来，公共部门持续变得私有化、资本化，这些都成为了现在面临的现实，医疗领域也不例外。为了只要是识字的百姓，无论是谁都能拥有照顾管理自己身体的预防医学，为了百姓的安宁和健康而编撰的《东医宝鉴》，通过《东医宝鉴》来确认一下这种公共医学精神，我想再次强调这一点。

右图是首尔市韩医学博物馆，在此可以体验和参观包括《东医宝鉴》在内的韩医药材和历史。据说从1楼到3楼都设有与韩医学相关的展示体验馆，如果大家对这个领域特别感兴趣，可以来这里参观。

我写的标题是‘北韩历史小说《东医宝鉴》。许浚的直系后代生活在朝鲜’。据说撰写《东医宝鉴》的许浚的直系后代现在生活在朝鲜。因为许浚的十代孙搬到了黄海道海州。黄海道海州现在属于朝鲜。因此，直系后代现在在朝鲜。在朝鲜，《东医宝鉴》也被认为是重要的文化资产。研究表明《东医宝鉴》属于社会文化旅游资源。所谓社会文化旅游资源，是指以旅游魅力为源泉，朝鲜以这种方式规定了被利用或可以利用其观赏的社会文化对象和现象。所以指的是被用作文化遗产资源、博物馆资源等。从1980年代开始正式进行外部旅行、旅游的朝鲜，《东医宝鉴》被评价为社会文化旅游资源中的历史文化资源，并展示了这些资源。

与此相比，历史小说的出版时间比韩国晚。在韩国，小说《东医宝鉴》于1990年作为单行本出版，在朝鲜，金星出版社于2018年以长篇史话为主题出版。我非常好奇朝鲜在哪个博物馆展示《东医宝鉴》，但无法确认。如果能自由地确认就好了，但还没有这项研究。

只是想介绍一下撰写《东医宝鉴》的作家的结局。民族珍贵的财宝—作为世代相传的高丽3大医学经典之一的《东医宝鉴》。‘这是以对国家和民族的热爱和燃烧的灵魂，炽热的感情和灵魂挣扎的医学家许浚的一生的总结，是他人生的宝鉴。’标题这样写的。因为本讲座没有涉及朝鲜的历史小说，所以在此作为指南向大家进行说明。我认为在韩国大受欢迎的电视剧《许浚》对其人气也起到了作用。我推测，是不是朝鲜方面认为，如果这样，就会被韩国(South Korea)抢走，所以急忙将《东医宝鉴》作为自身的文化遗产，并这样写成历史小说呢？

这里展示的是人参的学名，Panax ginseng和开城商人。我讲述的是韩国人参和巨商的故事。人参是韩国的代表性药材。也是非常大众化的健康食品。因此，人参被韩国人视为有些像米饭一样的主食，我也是这样认为的，但真正要授课时，才发现有很多我不知道的地方。

人参的主要产地是东亚和北美洲。中国紧邻韩半岛。所以我认为东亚人参的长相也是一样的，今村鞆(1870-1943)出版了7本整理人参史的书，可以在本讲座中确认。从今村鞆的资料来看，可以确认形态如此不同。从左边的照片来看，中国大陆、中国出产的辽东人参和北美洲的美国产野生人参相比，根部非常短。相反，美国野生人参的细根非常多。

与此相比，这里写作朝鲜人参的高丽人参和人类非常相似，因此产生了或许高丽人参的功效更大的人文想象力。虽然持续发表证明功效的科学研究，但由于高丽人参和人类非常相似，所以流传着太多有关人参的神话和传说等，今村鞆也在书中记录了神话和传说。当然是用日语写的，翻译成韩语了。

有一部叫《传说的故乡》的大热门电视剧。讲述的是各种版本的神话传说故事。这里有一个名为‘把我的腿交出来’的恐怖版本，据说把尸体的腿切下来煮着吃的话，病人的病就会好，所以这个人去把腿切下拿了回来，在后面咚咚地喊着‘把我的腿交出来’，熬了一夜跟了过来，好不容易甩开他，把腿煮了，结果发现那正是人参的根。由此可见，人参与人的长相非常相似，所以我认为这可能是神话或传说。

而且人参成了开城商人的代名词。右图照片拍摄的是开城的商界人物。务必在本讲座中参考这个故事。通过人参博览会所看到的人参的全球流通和移动。目前，韩国的人参大多产自南方地区。因此，与人参相关的庆典、博览会、博物馆也主要在南部地区。南部荣州市设有人参博物馆，举办人参博览会，展示人参的历史和文物。但如果仔细看照片的话，会发现出现了路易十四。还出现了欧洲的药理学。人参已经超越了东亚贸易，向欧洲扩散。刚才还展示了北

美类似东亚人参的野生人参。被发现后还刮起了所谓的人参狂风，与西部金矿热潮一样。因此，人参的全球性交易造就的开城商人的名气刺激了作家们的想象力。

其中有趣的是17世纪Peter Paul Rubens(1577-1640)绘制的《身穿韩服的男子》的画作，不断出现围绕这幅画的故事。Rubens绘制的穿韩服的男子，我在本讲座上展示了照片。本讲座中也介绍了身穿韩服的男子是开城商人的吴世荣的《威尼斯的开城商人》中的故事。另一部以此为素材的李相薰的小说《身穿韩服的男子》，讲述的不是开城商人，而是假定为世宗大王时代制作过很多科学工具的蒋英实(?-?)的小说。蒋英实在世宗大王时期曾发展过卓越的科学技术，但以设计错了国王乘坐的轿子为由，之后从公共记录中完全消失了。所以谁都不知道蒋英实的结局如何，成为了黑暗区域。但在这部小说中，蒋英实去了意大利，成为了Rubens绘制的《身穿韩服的男子》的模特，是发挥这种积极想象力的小说。据说这部小说将在OTT上被拍摄成全球内容并推出，列奥纳多·达·芬奇也将出现，所以大家可以看看这部小说会以何种方式被制作成全球化内容。

虽然这种关于全球化关系网的想象确实受到时代的制约，仍然刺激着全球性的的好奇心和想象力，可能会继续被制作成其他小说或影像。能够很好地展现这种全球关系网的就是Diaspora的历史。

关于被抹杀者的再现欲望和全球之路，我起了这一标题。韩国的移民史大致可分为四个时期。第一个时期是1860年到1910年朝鲜末期，为了躲避政治混乱、饥荒、贫困等，从1860年代开始移民到沿海州。沿海州位于现在的俄罗斯地区。满洲、中国，还有属于美国的夏威夷，以及相当于墨西哥移民的第一期。第二个时期是1910年至1945年，在日帝统治地期间，被剥夺了土地和生产资料的农民和劳动者移居到满洲或日本。第三个时期是1945年至1962年朝鲜战争前后，1962年政府正式制定移民政策之前的时期。这个时期我稍微说明了混血儿童，混血儿童、与美军结婚的韩国女性、以及为了学业进行学习的学生等大部分移民到了美国。这也是冷战时期的产物。第四个时期是移民门户开放，从1962年到现在的时期。也有以定居为目的的集体移民的事例。1963年103名巴西农业移民可以说非常具有代表性。

其中1905年因墨西哥移民欺诈而被强制奴役的1033名移民留下了非常令人痛心的历史。墨西哥埃内肯农场的严酷劳动使许多人丧生。在完善本讲座的同时，作为进一步阅读的资料，我想介绍讲述1905年墨西哥移民事件的三部韩国小说。

《黑花》将在本讲座中提及，但除此之外，新小说《月下佳人》中也出现了这个故事。另外，朱耀燮(1902-1972年)的《为了抓住云》也讲述了这个故事，希望大家一起看一下。这是收录了李海朝(1869-1927)的作品《月下佳人》的作品集。第二部是朱耀燮1935年的作品《为了抓住云》。《黑花》是金英夏(1968-)的最新作品。

这三部作品都讲述了1905年被墨西哥移民诈骗所欺骗而饱受折磨的韩国Diaspora的历史。据说这是Global Road、韩国Diaspora的理想和背叛的历史，在这里可以看到现在韩国Diaspora、韩国移民者的数字。

所谓Global Road，是授课者为了说明韩裔Diaspora而写的。有多少人离开了韩半岛，分散到了全世界呢？现在约占全国人口的10%，800万左右，真是个不小的数字。虽然韩国人口在全世界并不多，但有如此多的Diaspora。所谓Diaspora的事实具有很强的强制移居的性质。虽然现在更广泛地被用作全体移民者的统称，但原来的词源具有不愿意离开故乡的人的意思。所以李敏金的《Pachinko》也是再现韩裔Diaspora的生活的小说。这部小说被拍摄成了Apple电视剧，在全世界大受欢迎。旅美韩人讲述了在日韩人、ざいにち历经四代人的生活。

包括Pachinko在内，分散在全世界的人们所写成的Korean系文学现在也变得非常活跃。从某种角度来看，人文学具有‘上路’这一非常重要的母题。从上路的事件开始，到中途意想不到的相遇和矛盾、苦难和考验、结局的大团圆结局或悲剧，都是从上路开始的。

如照片所示，中国和中东地区的移居正在减少，但欧洲和美国却呈现出增加趋势。但从数量上看，中国、美国、日本占据绝对优势。中国和日本的地理位置很近，但美国很远。因为与韩国经历的动荡历史深切相关，不亚于地缘接近性。

从墨西哥移民欺诈中可以看出，通过移居对新生活的希望，以无尽的挫折、断念结束了，但参与古巴革命的墨西哥移民们的移居途径非常有趣。想向大家介绍一下很好地展现了这一点的电影《Jeronimo》。

电影《Jeronimo》是2019年上映的纪录片。《Jeronimo》讲述了古巴韩裔第二代如何成为古巴革命的主角。Jeronimo的父亲林千泽在2岁时，因为墨西哥移民欺诈跟随寡母在埃内肯农场备受残酷劳动的折磨。1921年离开墨西哥移居古巴后，支援了从韩国殖民地解放的独立运动。还有林千泽(1903-1985)的儿子，他的儿子就是Jeronimo，韩国名字林恩祖(1926-2006)。Jeronimo和Castro在大学相遇。参与了古巴革命。旅美韩人导演全厚锡(音译)将父子两代人的故事融入到《Jeronimo》中。偶然去古巴旅行，在那里遇到了Jeronimo的女儿，诞生了这部电影。这部电影充分展现了Diaspora的意外的缘分，作为全球之路创造了新的历史和文化的历史事实。欣赏一下这部电影的预告片。

在这里还有一个关于游击队的讲座。形成了朝鲜抗日游击队的神话，游击队神话的根基。这里有关于游击队的内容。朝鲜就是以抗日游击队为基础诞生的国家。因此，在理解朝鲜的同时，如果不知道抗日游击队，就无法理解朝鲜的建国过程、朝鲜之后世袭的过程。因此，我从补充第9周授课的角度出发，展示了朝鲜抗日游击队的3份资料。抗日游击队员们的回忆被

强调为代表性的功绩记忆和记录,纪念抗日游击队员功绩的革命烈士陵园是实现世袭统治的力量. 这里有抗日革命家的坟墓. 这成为了拯救遗址、遗迹必须进行世袭统治的正当化的基础. 另外, 集体体操‘阿里郎’是根植于抗日革命斗争的集体舞蹈. 可以说, 朝鲜就是以抗日游击队为中心构成的.

最后, 以看待历史的眼睛, Brecht(1898-1956)的《某个读书的劳动者的疑问》, 来结束这课时. Brecht在《某个读书的劳动者的疑问》这首诗中这样说.

“书中只记载了王的名字. 国王们亲自运来了石块吗? 万里长城竣工的那天晚上, 砖匠们去哪里了? 凯撒围剿了加利亚. 他应该至少带着一个炊事兵吧.”

如果有人这样接受历史, 即使不考虑或思考, 也会很舒服. 但Brecht在《某个读书的劳动者的疑问》中警告了这一点. 没有疑问的生活总是认为维持现状是理所当然的. 对于既成性的不正当、不平等, 否定也会变得熟悉. 长城竣工的那天, 建造长城的砖匠的名字和真实面目完全消失了. 而且, 例如在拿破仑(Napoleon, 1769-1821)的业绩中, 一定程度上也存在使拿破仑建立业绩的炊事兵. 但这些人的名字并没有被载入史册. 《某个读书的劳动者的疑问》正是在告诉我们, 历史应该从这种疑问开始. 我希望本讲座能起到这样的作用.